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www.seoulurse.or.kr

2023. 12 WINTER

특별기고

생명의 봉사자, 간호사에게 보내는 응원

지상강의

스마트 간호 : 따뜻한 간호를 위한 차가운 기술들

최신의료동향

디지털 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





2023. 12. WINTER 서울특별시간호사회 www.seoulnurse.or.kr

발 발 편 담 편 위	행 집 위 원	행 인 인 당 장 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김윤숙
			이주연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자 ((주)한림 압박 옷 연구소)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숙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최인숙 (경희의료원)
			한세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간호 2023년 겨울호 통권 제42호

발 행 일 2023. 12
 발 행 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6가길 26
 T. 02-853-5497 F. 02-859-0146
 E-mail sna@seoulnurse.or.kr
 홈페이지 www.seoulnurse.or.kr

디자인 · 인쇄 홍진피앤피 T.02-2275-9875



>> CONTENTS

> Column	권두언	“서울간호와 친해지기”	_ 02
> Feature	특별기고	생명의 봉사자, 간호사에게 보내는 응원	_ 04
	지상강의	스마트 간호 : 따뜻한 간호를 위한 차가운 기술들	_ 08
	최신의료동향	디지털 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	_ 12
	피플	옆집간호사 구슬언니	_ 18
> Cover Story	주제가 있는 이야기	‘Value based Nursing Care 내가 추구하는 간호의 질, 간호의 가치’	_ 21
>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_ 33
	즐거운 일터		_ 58
	포토에세이		_ 66
> SNA News	본회소식		_ 68

“서울간호와 친해지기”



김윤숙 편집위원장

안녕하세요,
서울시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올해부터 편집위원장을 맡은 김윤숙입니다.

서울간호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서적일까요?

서울간호 여름호를 발간하고 겨울호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구독자와 발간자 간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저에게도 서울간호는 익숙지 않은 읽을거리였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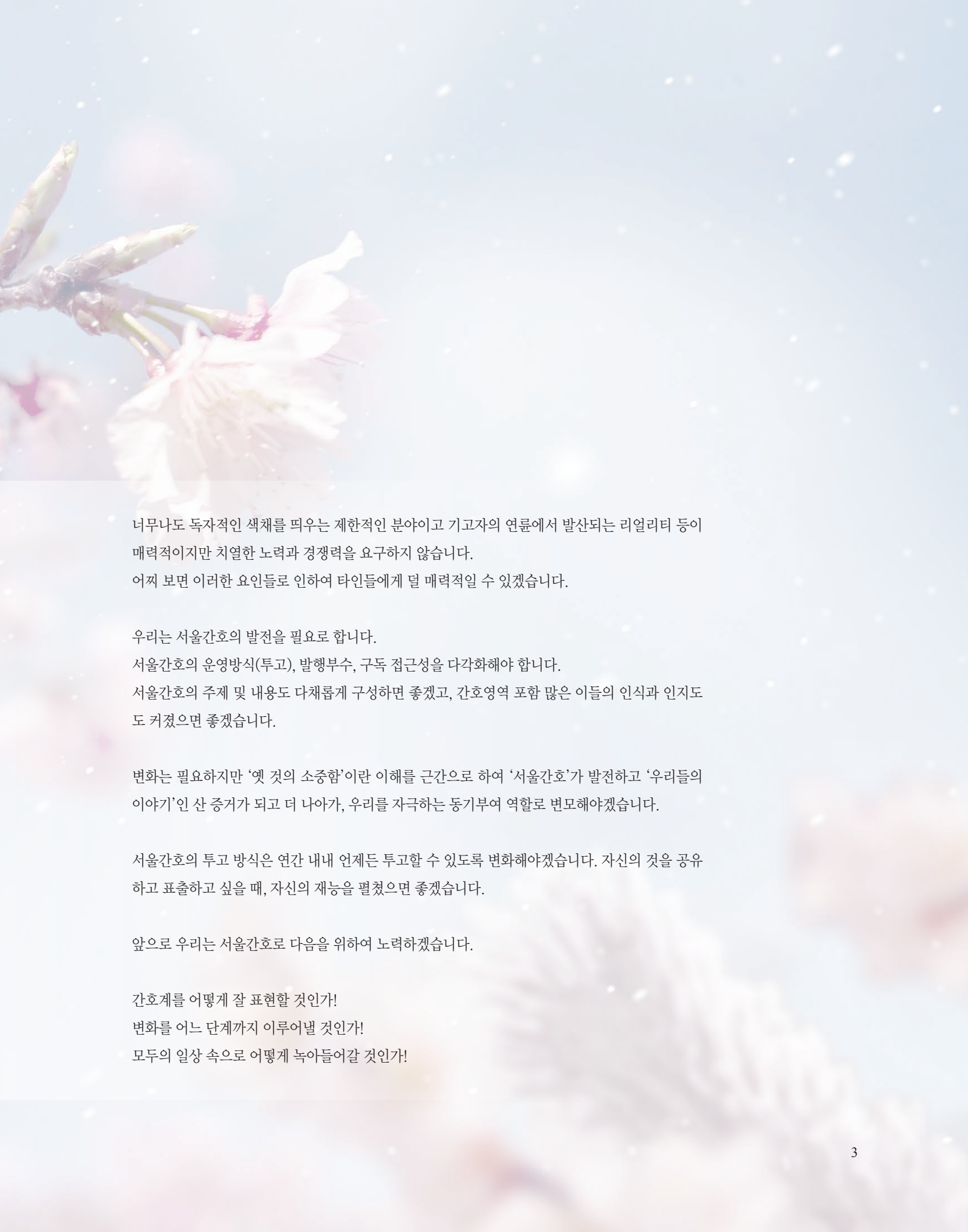
대부분의 구독자는 서울간호를 접할 기회가 없거나(발간 부수와 접근 경로), 책자가 있어도 잘 읽으려 하지 않고 주변에서 지인이 글을 쓰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게 되는 경우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 뒤적여 보거나, 관심사를 발견하면 보게 되는 정도입니다(홍보성과 인지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준비 위원들의 활동에 따라 모집 편수와 수준 및 다양성이 좌지우지 됩니다.

혹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한권의 전문 잡지가 탄생되기까지 어떤, 혹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투입되는지를 격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호평이 뒤따르지 않는 냉혹한 현실도 보여줍니다.

물론 서울간호는 상업성을 추구하는 발간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독자적인 색채를 띄우는 제한적인 분야이고 기고자의 연륜에서 발산되는 리얼리티 등이 매력적이지만 치열한 노력과 경쟁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타인들에게 덜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울간호의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서울간호의 운영방식(투고), 발행부수, 구독 접근성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서울간호의 주제 및 내용도 다채롭게 구성하면 좋겠고, 간호영역 포함 많은 이들의 인식과 인지도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옛 것의 소중함’이란 이해를 근간으로 하여 ‘서울간호’가 발전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산 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극하는 동기부여 역할로 변모해야겠습니다.

서울간호의 투고 방식은 연간 내내 언제든 투고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공유하고 표출하고 싶을 때, 자신의 재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울간호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간호계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변화를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낼 것인가!

모두의 일상 속으로 어떻게 녹아들어갈 것인가!

생명의 봉사자, 간호사에게 보내는 응원

유양숙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장



유난히 힘들게 지나온 여름 끝에 맞이한 가을이 고마운 선물같이 느껴진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인연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은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있기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함도 알고 있다. “내가 다녀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것(헬렌 니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각자의 달란트와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특히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에 봉사하는 동안 누군가의 고통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막중한 길에 선 사람이다. 간호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아 주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송고한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성직(聖職)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극한 직업이라고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자와 일터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우리의 대상자는 어떠한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건강을 회복하거나 치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신체의 일부나 기능을 상실하여 불편한 상태로 여생을 보내기도 하고, 질병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인 고통을 포함하여 정신사회적, 영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의 대상자들은 각자 질병의 궤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전인적인 돌봄을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질병경험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변경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환자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가족도 있지만,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비협조적인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 짜증이나 화, 비합리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환자도 있다. 때로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환자를 지지할 수 있는 정성과 여력이 부족한 가족,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인 이유로 치료계획에 의견대립이 있거나 갈등이 고조되는 가족도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편안하지 않은 대상자와 함께 해야 하며, 종종 죽음의 현장에서 그 관계를 종결하기도 한다.

2. 우리의 일터는 어떠한가?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적 배경, 종교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선천적으로 건강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불행한 사고를 겪거나 어린이와 같이 자신의 건강문제에 책임이 없는 무고한 이들이 겪는 가혹한 고통 앞에서, 고도의 의술로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돌봄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간호사는 동료들 포함하여 다양한 직군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해야 하며, 수 많은 질병에 따른 갖가지 진단법과 다양한 약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술기수행에 능숙해야 하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신속하게 의료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의 의료환경은 환자 생명의 구조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은 물론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과 국내외 권위 있는 평가기관의 인증, 대상자 만족도와 평판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실무를 제공하면서 교육 및 상담자, 연계와 협력 및 조정을 위한 관리자나 행정가, 연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고통받는 대상자 곁에 머물러 주거나 그들의 호소를 경청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지만 측정하거나 가시화할 수 없는 간호활동은 무시되거나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때로는 환자나 가족, 동료나 다른 직군의 구성원과 갈등을 겪거나 비난이나 원망을 듣거나 부당한 책임이나 탓에 내몰리기도 하는 등 모호한 역할에 더하여 우호적이지 못한 다른 직군들과 역할의 경계를 협의하는 것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과제이다.

간호사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의 스펙트럼이 넓는데, 특히 신규간호사는 빨리 습득하고 감당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실무현장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거나 태움이나 괴롭힘과 같은 공격적인 조직문화에 노출되면 안타깝게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과 출산, 육아를 비롯한 가정사와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과제가 중첩되는 동안 지지자원이 부족한 간호사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돌봄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과 훈련을 위한 인력이나 시간, 비용 등 조직의 손실이 커지므로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일터가 버겁고 힘든 상황일수록 의미와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우연히 또는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배우고 삶의 완성과 구원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도록 초대받은 존재들이다. 즉 “이 생애 올 때 너만이 연주하도록 신이 네게 준 악보는 어디에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연주해야 할 악보~ (한동일, 믿는 인간에 대하여)”를 찾아 “내가 하는 일을 내려다보다가 신께서 손을 뻗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만큼 몰입하고(이나모리 가즈오, 왜 일하는가?)” 있는지를 자주 성찰해 보는 간호사, 죽음을 맞이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가는 환자와 함께 하는 것은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 대하도록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간호사, 임박한 죽음





앞에서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 환자가 홀로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잠시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중 나오고 있으니 편안하게 건너가십시오.” 라고 작별인사를 건네는 간호사, 위험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의 두려움을 온 마음으로 헤아리며 응원해 주는 간호사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있어 주면서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고통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스캇 팩, 아직도 가야할 길)”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치유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의 현장에서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민감성, 성숙성,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오늘날 숨 가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인 의료 환경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습득하고, 대상자의 요구와 고통에 대한 연민과 수용, 공감과 배려,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꾸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학제 팀의 구성원으로서 협력하고, 상호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며,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 나에게서 모든 존재를 포함한 더 큰 공동체로 사고의 중심축을 이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류시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대상자가 보다 행복해지고,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치열하고 척박한 길을 열정적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빌며,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유 양 속

現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장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BSN)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MSN)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PhD)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 분야 : 종양간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대표 저서 : 호스피스 완화 돌봄 (현문사, 2022)

성인간호학 (현문사, 2022) 등

스마트 간호 : 따뜻한 간호를 위한 차가운 기술들

방기석 한림대학교 창업지원센터 | 창업교육센터 센터장

필자는 최근 암 수술 환자의 보호자로 짧게 병원 생활을 함께했다. 비록 일주일 정도의 짧은 입원 기간이었지만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많은 의료진 특히 병동과 외래 간호진 덕분에 힘들지 않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환자 본인 역시 암 수술로 인해 두려우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편안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병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많은 부분에서 이전의 병원과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간호사의 치료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환자의 입/퇴원 과정, 병원 내의 행정 업무에 관한 많

은 과정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치료 및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입장에서 간호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으며 많은 간호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이러한 스마트 간호 기술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형적인 간호 업무는 입원 및 내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환자 기록, 처방약품 및 입·퇴원 수속을 위한 행정부터 환자/간호사 교육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 병동

우선 간호 품질의 향상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 병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마트 병실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실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병실에 구축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입원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기록하여 개별 환자의 상태를 침상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고 의료진과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의 병실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간호사에 의해 직접 측정되고 정리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와의 빈번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간호사의 병실 순회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업무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환자 상태 분석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환자 상태 관리도 간호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압, 체온과 같은 기초 상태를 측정하게 되면 대부분 개별적으로 기록한 뒤 스테이션에서 재입력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간호사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에 즉시 입력하고 이 기록이 원내 통합 시스템에 자동 등록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액 투여 시 수액 세트에 자동 모니터링 기기를 연결하고 간호사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액 투여 속도 및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수액 처방의 효율성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휠체어와 같은 이동 장비의 위치 추적, 병실 냉장고나 에어컨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간호 인력의 단순 업무를 경감시켜 의료진의 환자 돌봄 집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역시 환자 간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병실 내 고위험군 환자(고령 환자, 거동 불가능 환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욕창과 같은 상황은 간호 업무의 부담을 매우 증가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환자와 간호 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위험 환자 병동 내에 환자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환자의 자세, 행동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분석하며 낙상 상황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욕창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낙상 위험군 환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배회하는 상황을 즉각 판단하고 환자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상 위험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사전에 대응하는 낙상 예방 시스템을 통해 간호 업무의 경감을 추구할 수 있다.

스마트 병실에서는 환자와 의료진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투약, 검사 일정과 같은 환자 맞춤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치료 후 생활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진료비 결제와 같은 필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병실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지능형 병원 업무 자동화

간호 품질은 병실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간호 외에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외부 업무의 스마트화를 통해 향상할 수 있다.

환자가 외래 및 응급진료를 받은 후 입원 및 병상 배정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스마트화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병원 내 병동 상황 및 환자의 입·퇴원 데이터를 시를 활용한 지능형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하여 의료진의 단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환자 진료 데이터와 입·퇴원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이용해 중증 환자의 병상을 선점하고 환자 중심의 병상 배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병원 내 각 부서 및 병동에 필요한 많은 물품이 끊임없이 배송되어야 한다. 의약품이나 다양한 소독 비품의 배송은 빠르고 정확히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간호 인력 및 의료 인

력의 부담을 증대시키며 환자를 위한 업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지능형 원내 물류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배송 담당자나 대상자의 생체인증 시스템을 통해 약국, 병동, 공급실 간 무인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이동 공간을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민감한 의약품(항암제, 마약류 진통제 등) 및 소독/오염 비품을 배송하여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배송 시스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로봇은 출발/도착 시 담당자의 생체인증 시스템을 통해 개폐되며 안전한 운송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율주행 로봇은 원내 안내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서비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스템(간호 및 환자교육)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간호 인력의 전문기술 향상과 환자 대상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VR/AR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의 간호 교육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처치 및 응급 대응을 위한 기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 응대 및 다양한 성향의 환자 간호를 위한 대응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은 환자를 포함한 모든 보호자를 위해 제공될 수 있다. 기존에 문서로 제공되던 수술 및 수술 후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VR/AR 환경에서 체감하고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입원 생활 안내 및 수술 과정에 대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 불필요한 반복 교육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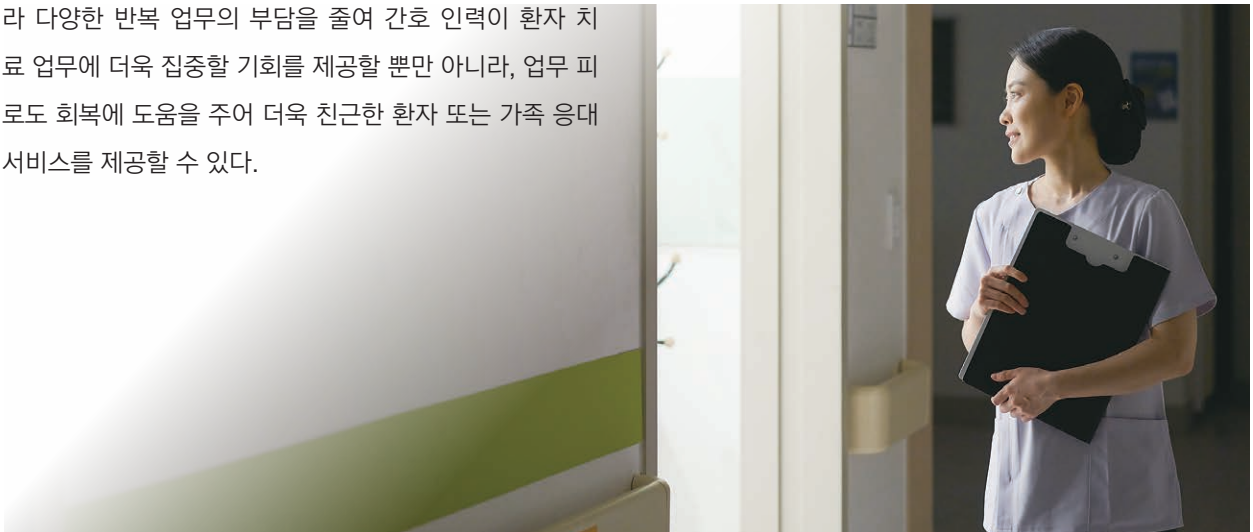
위에서 보인 사례들은 현재 실증을 거쳐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활용을 위해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많은 스마트 기술을 간호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간호 품질은 기본적으로 의료 및 병원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치료 환경에 좌우된다. 인력의 전문성은

반복적 훈련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치료 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관점에서 간호 품질은 치료 과정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나 치료 인력과 소통과 같은 요소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인력은 최대한 환자의 치료가 최우선이며 쾌적한 병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치료 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도치 않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수반하기도 한다. 환자로서도 치료 과정에서 겪는 많은 불안함과 통증 그리고 복잡한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불필요한 충돌 및 서비스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스마트 간호 기술들은 간호 및 치료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복 업무의 부담을 줄여 간호 인력이 환자 치료 업무에 더욱 집중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 피로도 회복에 도움을 주어 더욱 친근한 환자 또는 가족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병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로컬 규모의 병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부터 스마트 병원 구축을 통한 간호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이런 환경을 정착시킬 때 간호 품질의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병원 내부에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병원 통합 관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간호 품질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방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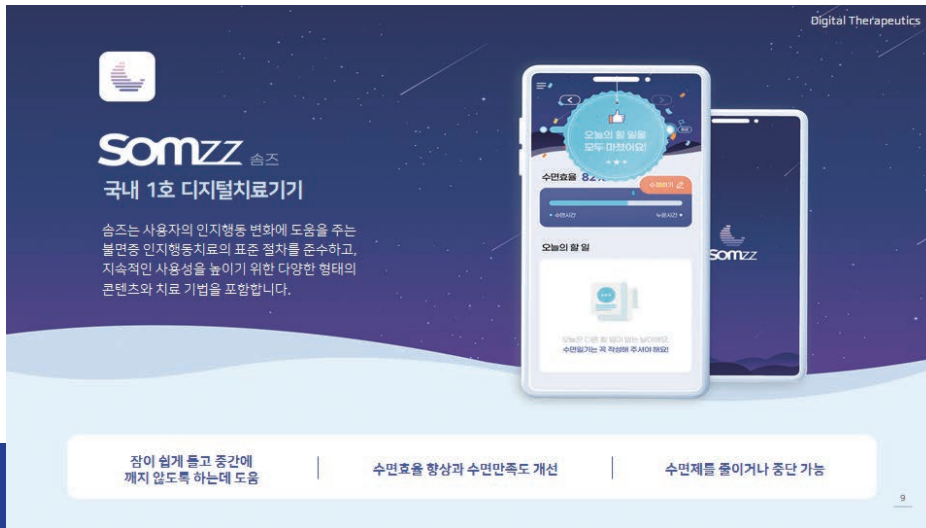
現 한림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FabLab
Gangwon 센터장
現 한림대학교 정보과학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전산학 석사, 박사



디지털 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

임진환 (주)에임메드 대표이사



디지털 치료제 혹은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말은 아직도 대중에게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심지어 의료현장에 있는 이들에게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료 기기는 무엇일까?

국제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치료제협회(Digital Therapeutics Alliance)는 ‘질병을 예방 · 관리 ·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제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정의도 거의 유사하다. 다만 식약처는 2020년 8월에 발간한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라는 용어 대신 의료기기임을 강조하였고,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도 디지털 치료제가 아닌 디지털 치료기기이며, 의약품의 성격 및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 받았지만 의료기기를 적용받는 제품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제품의 성격과 적용법이 다르므로 인해서 실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 토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단 디지털 치료기기는 영상 · 소리 · 텍스트 등 일련의 디지털 피드백으로 환자의 행동이나 생활 양식을 바꾸고, 그 결과로 얻은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며, 이를 통해 고도화 및 개인화가 지속해서 가능한 제품이다. 따라서 허가 당시의 정형화 된 안정성 및 유효성은 보다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고, 이를 위해 챗봇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어제의 환자에게 주었던 피드백이 고도의 알고리즘 및 데이터 학습을 통해 오늘은 다른 피드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의료기기법상의 소프트웨어형의료기기 (software medical device; SaMD)는 일련의 업데이트가 일어날 경우 수정 및 변경 심사, 혹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규제 당국은 디지털 치료기기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 가이드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이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피드백 알고리즘의 고도화는 허가 당시의 제품과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 논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직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척해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함에는 다름이 없다. 특히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1호인 “SOMZZ”를 개발한 나(주)에임메드 임진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생각보다 멀리 있음을 하루하루 깨닫게 된다.

앞서 언급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이 외에도 수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해결할 문제가 더욱 산적하다. 급여 비급여의 문제에서부터 수가 산정에 대한 상호 합의, 원내·원외 처방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치료기기의 유통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A/S 혹은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부분과 RWE(Real World Evidence)에 대한 소유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슈 등 글로 풀어 쓴다면 아마도 칼럼 내내 채워 넣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는 것, 특히 치료라는 의료의 영역에 민간기업이 만든 디지털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은 혁신을 위한 첫걸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의사가 처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업이 환자의 RWE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의사와 의료기관만이 소유하고 있던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물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치료를 위한 목적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환자 개인의 동의를 받은 활용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외에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안성 심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보안인증 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라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기업이 먼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신의 시선들을 납득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하며, 디지털 치료기기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해당 RWE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사 및 환자의 신뢰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들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해 보다 고도화되고 개인화된 디지털 치료기기로 제품을 진화시켜야만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의 삶을 디지털 기술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디지털 치료기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전 세계를 선도하던 페어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사의 기업 부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디지털 의료제품이 가지는 안정성과 확장성 이슈를 말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인체에 착용하거나 복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약품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이 얘기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고 명명되는 현재의 시대에 공간/시간의 제약 없이 적은 비용으로 치료 효과가 병원 밖 일상 지구촌 어디에서나 지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얼마 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MDRF)에 참가한 나로서는 AI 기술 기반의 첨단 의료기기 및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 규제시스템(Global Standard)을 구축해서 국가 간 규제의 장벽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논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디지털 의료제품에 있어서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고 대규모 데이터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율적이고 보다 쉽게 디지털 의료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 출시가 4~5년 뒤졌지만, IT 인프라 및 국민들의 IT 기술 숙련도가 글로벌 수위권에 드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회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만성 질환 유병률의 증가는 국가 공공보험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늘어나는 사회 구조상 의료비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높은 비용 대비 효과성은 전체 의료시장과 국가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일상이 되는 사회에서 각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날을 꿈꾸며 글을 마칠까 한다.



임진환

現 ㈜에임메드 대표이사
現 한국 보건산업진흥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 협의체 분과의원
現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이사
現 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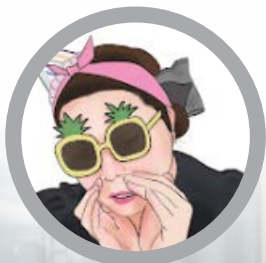


인터뷰 Q&A

옆집간호사



구슬언니



옆집간호사 구슬언니

@nurse_gooseul · 구독자 24,6만명 · 동영상 449개

응급전문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그리고 병원 이야기 >

instagram.com/gooseul1985 외 링크 1개



▶ **서울시간호사회 회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옆집간호사 구슬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사 출신 크리에이터 이구슬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13년 4개월 동안 간호사로 근무했었고 그 중 10년 가량을 응급실 간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저의 경력을 살려 간호사를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서울시 간호사회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 **전문직 간호사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간호사 업무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죠. 그러다보니 저도 그랬지만 정작 간호사 선생님들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업무 중 힘든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슬언니가 했던 간호와 요즘 신규 간호사들의 간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제가 간호사로 입사했던 시절에 비해 요즘은 간호사들에게는 서비스가 많이 강요 되어 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태도로 환자에게 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업무를 할 때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간호사의 직업 전문성을 인정해주시고 대우해주는 분들이 많아졌고, 의사들과의 관계도 예전의 수직적인 문화에 비해서 협력하는 수평적인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간호부서장들이 간호를 잘하는 간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똑같이 바빠도 오늘은 즐겁고 보람있게 일했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고, 너무 힘들기만 한 날도 있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부서원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며 일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 부서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말이야.”의 마인드가 아니라 현 시대의 부서원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시고 연차별 고충을 고루 들어주시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간호현장에서 함께하는 서울시간호사회 회원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간호현장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아져야 합니다. 저는 간호현장을 떠난 사람이기에 지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제 위치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간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기 동영상 ▶ 모두 재생

<p>14년차 간호사가 응급사직을 안 이유</p> <p>[100만뷰] 14년차 간호사가 응급사직한 회사 썰 Korean...</p> <p>조회수 114만회 · 2년 전</p> <p>자막</p>	<p>주사 연습모형 관련 사용후기</p> <p>[100만뷰] IV 연습 모형 실재 사용후기 직접 정맥주사...</p> <p>조회수 103만회 · 3년 전</p> <p>자막</p>	<p>IV 정맥주사 놓는 법</p> <p>IV 정맥주사 놓는 법 짧은 영상도 성공하는 방법</p> <p>조회수 102만회 · 2년 전</p> <p>자막</p>	<p>실제상황! 내 아이를 살린 하임리히법</p> <p>실제상황! 내 아이를 살린 하임리히법 Real situation...</p> <p>조회수 83만회 · 3년 전</p> <p>자막</p>	<p>AST 연습을 모범</p> <p>주사 연습 모형 리뷰 2탄</p> <p>조회수 78만회 · 2년 전</p> <p>자막</p>	<p>13년차 간호사의 노하우</p> <p>13년차 간호사가 알려주는 재빨리는 방법</p> <p>조회수 59만회 · 3년 전</p> <p>자막</p>
---	---	--	--	--	---

재밌는 의료상식 ▶ 모두 재생

알아두면 좋은 의료상식

<p>팔이 두면 좋은 의료상식</p> <p>팔이 두면 좋은 의료상식</p> <p>열집간호사 구슬언니</p> <p>조회수 113만회 · 5개월 전</p>	<p>치아가 빠졌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p> <p>치아가 빠졌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shorts #응급처치</p> <p>열집간호사 구슬언니</p> <p>조회수 11만회 · 5개월 전</p>	<p>응급실에서 임마들이 많이 하는 말</p> <p>응급실에서 임마들이 많이 하는 말 #shorts #응급실 #보...</p> <p>열집간호사 구슬언니</p> <p>조회수 298만회 · 7개월 전</p>	<p>발을 아끼고 여기에 루신다 구요?</p> <p>발을 아끼고 여기에 루신다 구요? #shorts #발 #화상</p> <p>열집간호사 구슬언니</p> <p>조회수 13만회 · 7개월 전</p>	<p>발을 좀 제발 여기에 두지 마세요</p> <p>발을 좀 제발 여기에 두지 마세요</p> <p>열집간호사 구슬언니</p> <p>조회수 2.9만회 · 7개월 전</p>	<p>수술할 때 굳이 침대로 가는 이유</p> <p>수술할 때 굳이 침대로 가는 이유 #shorts #수술 #병원침대</p> <p>열집간호사 구슬언니</p> <p>조회수 45만회 · 8개월 전</p>
--	---	---	--	--	---



Cover Story 주제가 있는 이야기

'Value based Nursing Care 내가 추구하는 간호의 질, 간호의 가치'

■ 내 환자의 weak point는?	고준호	22
■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가치	김복순	23
■ 나의 간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해정	24
■ 분만장 간호사들의 간호 이야기	박은혜	28
■ 간호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정화	31

내 환자의 weak point는?

고준호 서울아산병원

내가 추구하는 간호의 질은 간호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했다. 응급실은 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주 하지 않는 의사를 대신해서 간단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 치료와 간호를 받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득, 그건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진짜 ‘간호의 질’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추구하고 최고라 여기는 간호의 질은 말 그대로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잘 보고 돕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看護(볼간, 보호할 호) 있는 그대로 말을 풀이해도 그렇다. 그러면서 ‘맞지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질이자,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 전 환자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 부분을 보겠지만, 나는 특히 환자의 활력징후와 호소하는 증상에 체크를 해두고 보는 편이다. 4년 차 응급실 간호사이지만, 사실 이것만큼 환자의 상태를 단편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저혈압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한 번 혈압 체크를 해보았는데, 혈압이 떨어진 쇼크 상태 직전인 경우를 종종 봤을 것이다. 보통 출근 후, 인계를 받고 정규라운딩으로 환자의 상태와 활력징후를 확인한다. 환자의 상태나 활력징후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noti하고 처치를 한다. 그러고 난 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열인 환자는 일시적으로 해열제를 투여한 후 열이 떨어졌으나, 부작용으로 혈압도 같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며, 저혈압 환자도 일시적으로 수액 보충 후 혈압이 정상범위를 되찾았으나,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호흡곤란, 저혈당, 혈변, 흑색변, 토혈 등 급하게 의사 noti가



필요한 여러 상황과 그에 대한 처치가 있을 것이다. 급한 처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활력징후 측정을 해보는 것, 직접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는 것이 간호의 질이라고 생각이 든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러한 능동적인 간호 수행은 참 어렵다. 부족한 의사 설명에 대한 보호자와 환자의 응대와 쏟아지는 의사의 처방들과 갑작스러운 시술과 수술 준비를 하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어진 일만 하기에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모든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환자는 활력징후나 증상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고, 또 다른 환자들은 저혈압, 저혈당, 고칼륨혈증, 명확하지 않은 의식수준, 잦은 고열로 인한 심한 오한 등 각 환자의 weak point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위주로 환자를 재 사정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환자의 응급상태를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처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를 하다보면, 환자에게 직접 가야할 일들이 참 많다. 설명하러 가거나, 투약하러 갈 때, 심지어 채혈하러 갈 때 각 환자의 weak point를 인식하고 해야할 일들과 함께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혈당 측정, 의식 사정을 한 번씩 더 하게 된다면 그것 만으로도 응급 예방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내 담당 환자만큼은 각자의 ‘weak point’를 인식하고 간호를 시행하여, 응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가치

김복순 대림성모병원

백의 천사의 꿈을 안고 간호사가 된지 헤아리기 쉽지 않은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순수하고 푸릇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상해 보니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만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과 회한의 눈물이 아닌가 싶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첫 출근을 했던 설레이는 마음도 느껴본다. 그렇게 한발 한발 씬 없이 나아가 지금에 이르렀다. 내 인생에서 간호사란 전부였다. 참 간호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는 것만이 최선인 줄 알았다.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생길 나이가 되다 보니 이제서야 환자분 얼굴의 주름과 까칠해진 입술, 아픔, 안도, 근심, 걱정의 모습이 보여진다. 어리숙했던 나에게 온전히 몸을 맡긴 그날의 환자분들께 미안한 마음과 좀 더 잘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와 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던 그 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정반대의 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나의 기술이 아닌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 변화무상(變化無常)한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易地思之(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다가가려 노력한다. 간호의 기술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은 쉽

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듯 하다. 지난날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검사 결과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방사성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 RI)치료 및 추적검사를 진행하면서 무심코 전한 위로의 한 마디가 그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겉으로 표현을 안하셨던 분이래 담대히 이겨나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환자분은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한 분이 있었다. 이렇듯 간호기술이 아닌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에 대해 환자분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 같다. 내가 추구하는 간호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 어루만져주는 emotional care이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료인으로서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다. 간호의 가치는 간호사 저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 내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의 침상 옆에 서 있는 당신은 바로 간호사이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참 간호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나의 간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아버지를 추모하며-

이해정 중앙보훈병원

나는 29년차 간호사다.

염세주의자였던 내가, 간호사는 내 길이 아니라며 늘상 사직을 생각하던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등글등글 간호사 생활을 29년이나 한 것이다.

내 간호사 생활의 시작은 소아과(소아청소년과) 병동이었다.

그냥 단순히 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지원 했는데 기피 대상인 소아과 병동에 바로 배치될수 있었고 다행히 이 일은 나와 잘 맞았다.

나는 진심으로 아이들이 너무 예뻐고 아픈 모습이 안쓰러워 정말 최선을 다해 한번이라도 손길을 더 주려고 애쓰고 동동거렸었다. 이런 내 모습이 서툴러도 낯선 엄마들의 마음에는 들었던 거 같다.

신입 시절 부족한 어린 간호사를 보호자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처음 일했던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배운 한 가지는 아이를 소중하게 대하면 보호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단 아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내가 간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배움은 많은 문제들을 사그라들게 하였고 응급실, 중환자실, 재활병동, 외래 등을 거치면서 이 같은 마음가짐은 내 간호사 생활을 비교적 평탄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내 후배들,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당부한다.
환자를 내 가족같이 대해 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그 분들은 누군가의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들딸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호사 생활하는 동안 내 스승은 언제나 아버지였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아버지가 향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최근 우리병원에서 4개월간의 입원생활을 마치고 날아갈 듯 가볍고 행복한 걸음으로 시골 집으로 내려 가
셨던 아버지였다.
건강한 모습으로 꿈 같은 2주간의 행복한 시간을 고향 집에서 보내시고 거릿말처럼 세상을 떠나셨다.

20여년 동안 아버지는 당뇨병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환으로 우리 병원을 다니셨고 때론 입원도 하셨었다.
엄마는 다른 많은 자식들을 챙겨야 했기에 간병은 언제나 병원에서 일하는 내 몫이었다. 덕분에 어머니가
안계시냐는 이야기도 종종 들곤 했었다.
비단 나뿐 아니라 간호사로 일하는 이 세상 많은 딸들이 아마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집이 시골이라 중학교 이후 거의 외지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우리 형제들에 비해 나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것 같다.

퇴근 후 아버지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 딱딱한 보호자 침대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간호사의 마음씀이 얼마나 큰 간호였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랑을 받고
나면 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다니는 병원에 대한 사랑, 동료들에 대한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는

한동안 신나게 사랑 많은 간호사가 될수 있었다.

그리고 일하면서 환자들한테 내가 받은 사랑을 쏟아 부었다.

내가 환자, 사람들에 지쳐 갈 때쯤 아버지는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그런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 같다.

이세상은 나혼자 사는게 아니라 도움주고 도움받고 사는 거라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 죄송하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

나는 다른 환자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유독 아버지한테는 냉정하고 못된 간호사 딸이었다.

아버지가 어린 간호사들한테 반말을 할라치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라 부르라고 무안을 주고, 주사를 여러 번 찔러 아프다고 고자질을 하면 아버지 혈관이 잘 안나와 그런다고 참으라고만 했다.

빨리 집에 가려면 참고 견뎌야 한다고만 했다.

우리병원까지 미처 오시지 못하고 근처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 계시던 엄마의 “숨이 찬데 답답하다고 산소줄을 자꾸 안하려 하신다.”는 말씀에 전화 바꿔주라 해서 마지막까지 나는 ‘답답해도 산소를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려 했었다.

전화기 너머로 ‘나 전화 못 받는다.’가 그토록 듣고 싶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좋은 날이 많이 남아 있을 줄 알았다.



마지막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 곁에 같이 있어 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

아직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계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입원해 계시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반갑게 나를 맞아 주실 것 같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던 아버지가 왜 사진을 그렇게 찍자고 하셨던지...

우리병원 곳곳에 아버지와의 추억이 남아있다.

‘당뇨발’ 수술로 하루종일 꼼짝 못하고 침상에만 계셔야 했기에 주말이면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병원이 곳 저 곳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아버지는 바나나우유, 나는 커피를 마시며 벤치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을 함께 겪었고 거 세계 쏟아지는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골집으로 어서 내려 갈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기도 했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퇴근길에 얼마 전 우리 부녀와 같은 모습의 환자와 보호자를 보고 달려가 말할 뻔 했다.

지금 잘해드리라고.

지금 더 잘해드리라고.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고.

아버지를 돌봐 주셨던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 외 병원 가족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한다.

내가 간호사였다는 것도, 우리병원 간호사였다는 것도 감사한다.

나의 간호는 아버지께 배운 사랑이었던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었던것 같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분만장 간호사들의 간호 이야기

박은혜 서울아산병원



나는 2012년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하여 올해 책임간호사로서 가진 목표는 부서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일이었다.

일부 간호사는 처방을 수행하고 환자의 요구를 수행하고 간호에 특별한 게 없다며 사직을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나는 이때 조직문화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조직문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는 '핵심가치'이다. 핵심가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여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나는 간호 수행을 핵심가치와 일치시키면 더 큰 만족감과 목적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간호의 의미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각 조직의 미션, 비전과 함께 항상 따라붙는 핵심가치는 우리에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지만 먼 존재로 느껴지고 있었다. UM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핵심가치가 부서원들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을지 고민했고,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목표로 각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간호실천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해 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에는 너무 거창한 사례만을 생각하려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동료들의 일상 속의 다양한 간호 사례들이 쌓이며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가진 특별함에 대해 자부심을 나눌 수 있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우리가 경험한 공동체 중심 사고

얼마 전 나이트 근무 시 massive bleeding으로 응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의사, 간호사, 조무원까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분만장의 강점인 팀워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 번 근무 중이라 간호사 인력도 많지 않고, 고위험 임신부 집중치료실과 집중관찰실에도 환자가 있는 상태라서 A팀 간호사가 태아 모니터 및 전화 응대를 잘 담당해 주었고, 조무원님도 혈액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어 예정된 수혈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출혈로 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 교수님이 간호 인력도 고려하여 당직 의사들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모든 업무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들, MET 지원 인력, 조무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의사 소통하였던 그날, 다시 한번 공동체 중심 사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우리가 경험한 미래 지향

5년 동안 분만장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산 환자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힘들었고, 나중에는 너무 무감각해진 느낌이라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해야 하는 많은 업무와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인 케어에 대해 고민하여 딜레마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작년, 간호 상황 모범 사례에 실려있는 '산모와 출생 직후 사망신생아의 주산기 사별 간호'를 접하게 되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산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에게 많은 전환점이 되었던 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산모와 보호자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할 때 트라우마를 우려하여 저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기를 정성스럽게 싸서 안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분만장 PI활동인 사산 과정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진행(약물, 검사 등)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나와 환자, 보호자의 시각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산안내문을 새로 제작하고, 부서원들끼리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간호를 돌아보고 수정, 개선하는 분만장의 모습을 보며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 우리가 경험한 미래 지향

○○○ 간호사님은 보면 늘 도전하며 언제나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꾸준히 운동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부서내 업무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후배 모두와 원활한 인관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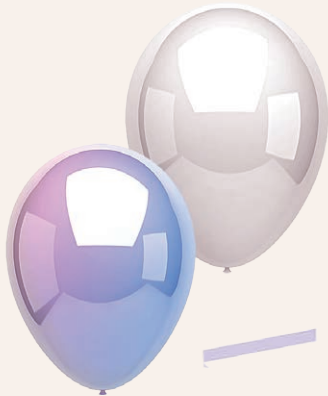
분만장의 미래지향의 표본은 ○○○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격월로 핵심가치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모집하고 공용 공간에 게시 후 BEST 사례 3가지를 함께 일을 하는 간호사와 조무원, 여사님, 전공의들의 투표를 받아 선정하고 선정된 분만장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느 날 후배 간호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선생님, 핵심가치라는 것이 하늘의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간호 행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뻐어요. 다른 동료들의 스토리도 읽어보니 우리가 하는 간호가 참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12년 차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간호의 의미, 간호의 가치를 말로 내뱉거나 글로 쓴다는 것은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동료들과 이야기 공유를 통해 간호의 가치는 액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간호현장에서의 생생한 체험에 모두 녹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간호의 가치는 환자가 콜 벨을 누르지 않아도, 진통의 소리만으로 상태를 사정하고 달려간다. 간호사는 환자가 불안정한 경우 추가로 V/S, I/O 를 사정하고, 분만 후 출혈이 있다면 미리 추가 처치에 대한 준비를 해두고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업을 이끈다. 분만장 간호사들의 간호 이야기를 통해 ‘Routine is Special’임을 알게 되었고 그 특별함을 통해 환자는 입원 과정에서 감동을 경험하고 간호사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간호의 가치를 발견하길 바란다.



간호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정화 강남세브란스병원



누군가 물었습니다. 굳이 답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만났던 간호사의 따뜻했던 추억을 가지고, 간호의 꿈을 가진 이도 있고, 각자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병원을 다니지 않을 만큼 건강한 어린시절을 보냈기에, 특별히 기억나는 의료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생명에 의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남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찌개와 반찬을 해놓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강요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금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 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삶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게 된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간호 학생으로서 배워온 시간들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고,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수술실 간호사, 그 책임의 무게가 가끔은 버티기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그 안에서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숨 가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 그 안에서 나만의 색깔이 짙어질수록, 간호사로서의 나의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 후부터는 간호사가 된 이유에 관한 생각보다는 나는 어떤 간호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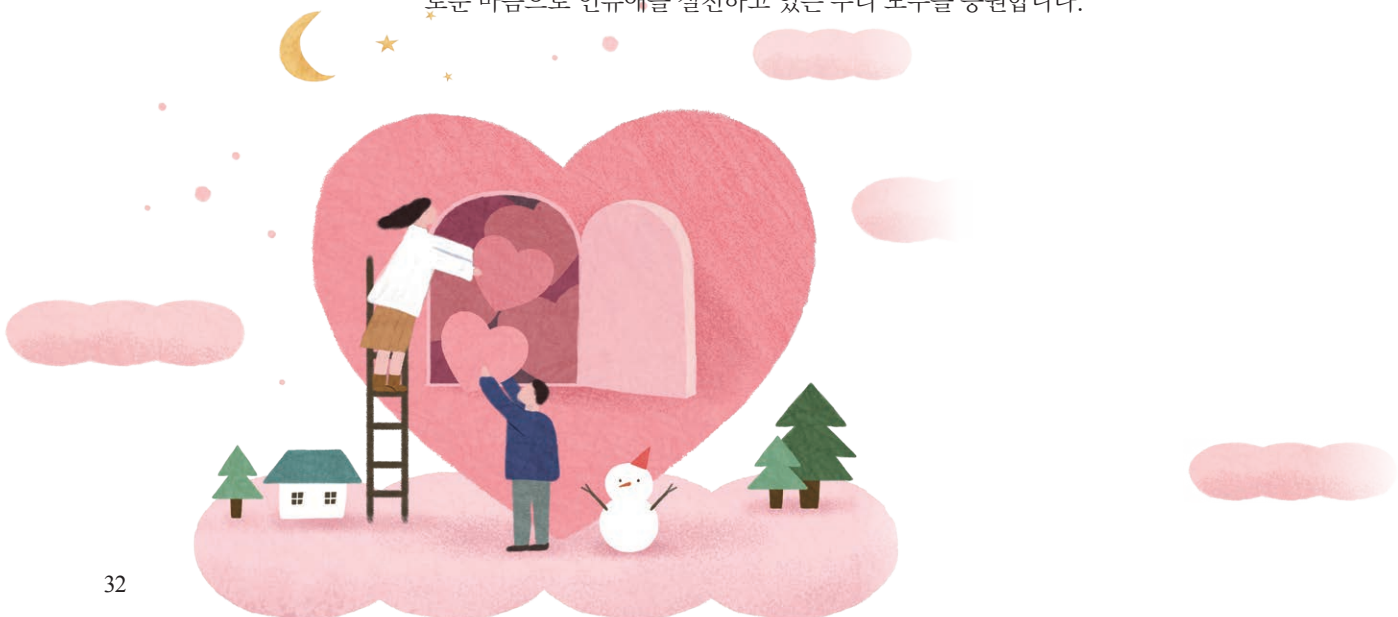
어느 날 튀르키예 구조 활동에 참석한 간호사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사망자 수 59,259명, 부상자만 129,803명이 발생했고, 세계 각지에서 구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철 대형 폭풍과 여진으로 인해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구조 활동을 펼치는 한국 간호사를 보았습니다.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던 그 현장감 느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연은 신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잔해 속에 갇힌 이처럼, 매일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들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술받는 환자들 특히 응급 수술, 혹은 사망율이 높은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는 대지진과 같은 질병, 혹은 사고로 우리들의 구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로서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조 활동의 일원이 되어 그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이 허락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떠나 나의 손길, 나의 눈빛, 나의 행동, 마음으로 전해지는 위로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무너진 건강과 삶의 유일한 구조자임을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간호에 대한 나의 가치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가는 커다란 나무뿌리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때, 팀원들과의 마찰, 혹은 개인적인 이유들이 거센 바람이 되어 나무를 거칠게 흔들지라도,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있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가 기억나지 않아 20년 만에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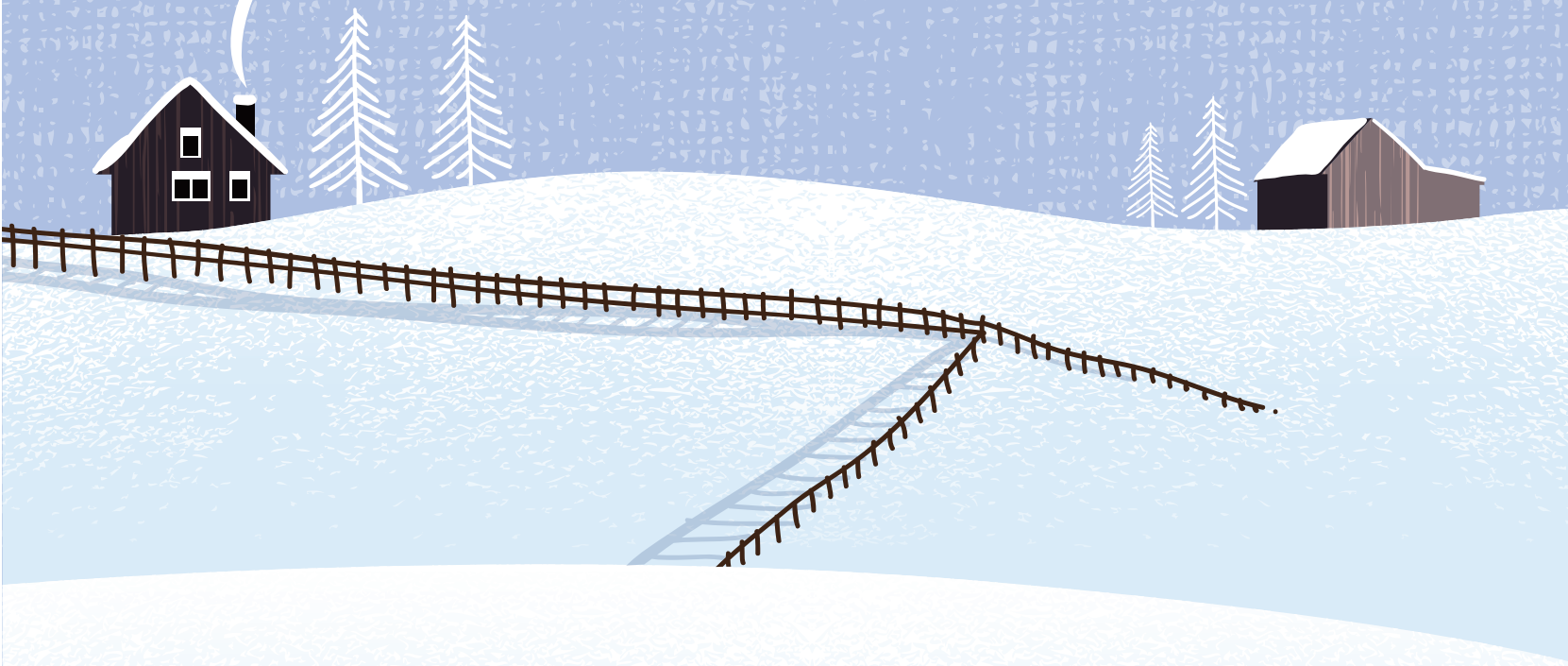
“일생을 의롭게 살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이란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간호행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조차 간호의 가치를 두고 행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 유리알 유희	서효경	34
■ 골목길	송선주	35
■ 내 별명은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엄마”	안준희	37
■ 죽음에 무너지지 않게	이수근	40
■ 안전한 의료 환경을 꿈꾸며	김나애	42
■ 숙련된 간호사로 살아남기	김보영	44
■ 나는 엄마다	조아영	46
■ To.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지호에게	주단비	48
■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서민정	50
■ 사람(人)과 함께하는 간호사	서아름	52
■ 가족 돌봄은 안전한 간호로부터	이미향	54
■ 생의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하는 간호사	최지희	56





유리알 유희

서효경 서울대학교병원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간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소설이 자주 상기되는 요즘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시인의 말이 어떤 의미의 바스락거림인지 생각나게 만드는 계절의 반을 보내고 있다.

많은 부분 천착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김질해 가면서 정작 본질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까락거리는 아이의 웃는 눈에 눈 맞추며 사랑해라고 말하는 일상의 감사가 간절함이 되지 않는 삶은 어떻게 꾸려가는 것일까.

산아래에서 습기가 연무를 만들고 커져가다 어느새 산중턱으로 사라져가는 새벽의 기다림에서 고요한 암흑이 감사하다.

유리알 유희라는 제목의 수필을 열심히 습작하다가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두페이지에 달하는 글이 사라져버렸다. ‘파일찾기’에서 ‘유리알 유희’를 치면 제목 검색은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아... 손끝에서 좌판을 열심히 두드린 온기가 아직 생생한데 생경하게 다가오는 없는 파일이라니...

복구할 수도 없는 파일이라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파일이라니... 짧고 보잘 것 없던 내글의 존재가 이리도 궁금해지다니... 그래도 애지중지는 아니어도 꽤 고심하며 적어간 글이 자취가 없다. 뒤를 둘러보지만 엄한 것이다. 선택적 삭제기능이라도 옵션으로 달린 것이냐...

여하간. 그래서 ‘유리알 유희’를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여백에 힘을 빼고 적어간다. 키보드에서 ‘쓰다’의 줄임말이 입력이 안된다. 커서를 이리저리 눌러봐도 이 글만 입력이 안된다. “sseo”를 쓰고 싶은데 입력이 안되어서 작성이라고 대신 돌려쓴다. 이런...

어느새 생각의 그물망보다 나는 키보드에 집착하느라 사과의 연결쇠를 잊은지 오래...

무언가를 쓰려고 했던가...

아... 나는 ‘살아간다는 것’의 연결고리에 대해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정성을 들여 써 내려간 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문장이 꽤 쓸만했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글은 사실 무의미한 글자의 나열이지 않았을까... 라며 나는 아쉬운 마음을 탁탁 털어낸다.

산다는 것도 그러하다. 최애했던 순간이 의미를 상실하고 내려져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날들을 배워가지. 내게 없어서는 안될 것 같은 순간이 사실은 지워져도 연결고리마저 완벽한 가치를 상실해가는 순간의 마주함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평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보채고 썰 필요가 없는 생이다.

이대로의 나는 이대로로 충분하고 또 살아갈 날의 나에게도 따스한 시선을 보내자.

골/목/길

송선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른 아침 병원에 가는 길에 주위를 둘러 본다.

무언가 쫓기듯이 종종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길가를 둘러 보게 된다.

신규때부터 익숙하게 건넌 골목길에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어도 예전에 그 가게가 생각난다.

일하다가 창문을 내려다 본 그 가게들은 사라져도 내 머릿속에는 그 가게 사장님, 간판들이 떠오른다.

“○○황태국”

신규때 나이트 근무 마치고 선생님들이랑 갔었는데, 그때는 밤새내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약 챙기고, 땀 뻘뻘 흘리고 어떻게 아침이 왔는지도 모르고 일하고 나와서 선생님들과 먹었던 그 집이다. 무슨 맛으로 해장국을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지 그 때 같이 먹었던 선생님이 보고 싶다.

새벽부터 고기 삶은 냄새가 온 골목길을 휘감고 집집 담장에 그 냄새가 배일 것 같다.

황태국집 옆에 미용실, 만두집, 지하노래방, 떡집...

“○○떡집”

요즘이야 먹을 것이 많고 빵집도 많이 생겨서 떡집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땀땀히 내다 보니 아직 문은 열지 않았지만 저 안쪽에는 쌀떡을 익히느라 새하얀 떡찜 연기가 뽀뽀 가득하다. 하얀 연기와 바로 만든 떡을 생각하니 입안에 저절로 침이 고인다,

지금이야 돌잔치다 뭐다 신규간호사의 1년을 격려하는 간호부 행사도 있지만 예전에는 병원근무하고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의 빨간 내복 사기보다는 하얀 백설기를 맞추어 병동에 돌려본 것 같다. 어리숙하고 어떻게 한달이 지난 지도 모르지만 하얀 백설기만큼이나 내 마음이 순수하고 잘 해보리라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다. 스테이션 뒷켠에 옹기종기 모여 먹으면서 “고생했다, 우리 잘해보자, 우리 ○○선생, 벌써 한달 됐어, 와~ 빠르다...”

한달이 어찌 지났는지 모르게 벌써 20년을 훌쩍 넘긴 나는 신규때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수술환자 제대로 확인 못해서 혼나고, 주사 몇 번씩 시도하다 결국 선배에게 부탁하면서 어렵게
말 꺼내던 그때가 그림다.

“○○치킨”

병원 일이 나에게 안 맞아 그만 두고 싶을 때, 이브닝 근무때 밥도 못 먹고 일하고 병원 나올 때
등등 수도 없이 생각한다. 그 때 선생님이란 친구랑 마치 자기집 마냥 들어 갔던 가게.

아직까지 있는 것이 새삼 놀래면서 아무도 없는 가게 안을 들여다 본다.

지금이야 병원 근처 수많은 치킨가게와 맥주집이 생겼지만, 후덥지근한 한 여름, 병원에서 나와
서 가게안에 앉아 시켜 마셨던 생맥주의 첫 모금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을 대체할 수 없
는 그 기분이 나를 웃게 만든다. 그것 때문인지 한동안 아니 그 해 여름에는 한 모금에 중독되어
해마다 마시면서 그리워했던 것 같다. 가끔 치킨에 생맥주를 마셔보지만 엄청시리 시원하고, 머
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시원함이 내려가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그 때 그 감정을 다시 느
끼지 못한다.

“○○○지하 노래방”

쿵쿵 발 구르면서 마이크를 높이 쳐들면서 노래소리가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게 목청 찢어지게
이 노래 저 노래들을 부르던 곳. 처음 가서는 노래 제목을 몰라 노래방 책을 무슨 고시공부 하듯
이 뚫어져라 보았던 기억이 난다. 분위기 띄우게 이거 트로트를 불러야 하나 최신 댄스곡을 불러
야 하나 아니 그냥 나의 18번을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가 노래방을 나온 적도 있었다. 웃음이 난
다. 무슨 정신이 가사를 몰라도 마이크만 모니터에 나오는 가사를 읽어나갔다가 선생님의 종료
버튼 누름에 얼굴이 빨갛게 창피할 때도 있었다. 그때는 노래방이 유일무이하게 병원 스트레스
푸는 곳이었던 것 같다. 점수와는 상관없이 부르고 나오면 아까 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가 왜 화났는지 잊어버리고 집으로 갔었다.

저 멀리 병원입구가 눈앞에 보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좋은 아침, 일찍 오네요... 아침부터 후덥지근하네요.”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후배 간호사와 인사를 하며 바라 본 하늘은 파랗고 높아 보인다.

문득 다른 이에게는 병원 골목길이 어떤 의미로 새겨지는지 궁금해진다.



내 별명은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엄마”

안준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20년 가을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었다. 그리고 공식 포스터에는 “브람스,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라는 문구가 부제로 있었는데 그 당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 중 브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공감된 나머지 훈훈한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것이다. 그때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 감동을 떠올리며 자연스런 패러디처럼 나에게 묻는다. “다빈치를 좋아하세요?” 내 대답은 드라마 대사처럼 “아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의 다빈치와 함께 한 15년간의 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물론 다빈치는 로봇수술기 이름이다.

세상엔 많고 많은 직업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지만, 어려서부터 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어 간호사가 되었다.

좋아하는 것에 가치를 둘수록 행복감은 높아지고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늘도 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좋아하는 다빈치 로봇수술을 가장 잘 아는 코디네이터로서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지금을 살고 있다.

1995년 병동 간호사로 첫 업무를 시작하여 수술실 신경외과와 비뇨의학과 방장을 거쳐 강남성모병원이 서울성모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한 2009년, 나는 2세대 다빈치 S 시스템의 로봇수술실 방장이 되어 첫 수술 비뇨의학과 전립선암절제술에 소독 간호사로 참여했다. 내가 홍익인간 달란트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빈치도 내장된 여러 장점들을 잘 발휘하여 암환자는 물론 여러 환자들에게 좋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좋아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자칭 다빈치 로봇수술



홍보대사가 되었고 올해 2월에는 INTUITIVE Korea National Commercial Meeting 2023 에 간호사 최초로 초대되어 “Why do you work for Da Vinci? Value & Influence ”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수술명이 같긴 하지만 절대 같지 않았던 수많은 수술들을 배우고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보낸 수술간호팀에서의 17년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너무나 박진감 넘쳐 마치 1년 7개월처럼 금세 지나가 버렸고 그간 나의 인생에도 소중한 가족이 생겨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간호사는 체력 소모가 많은 직업이고 특히 수술실 간호사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여 체력과 체격이 좋을수록 업무하기 용이한 분야이다. 부모님 덕분으로 나는 다빈치만큼 튼튼한 몸과 마음을 물려받아 그 시절 붙여진 나의 별명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수술실 솔져”였다.

마치 어벤져스 영화의 스칼렛 요한슨처럼 용감하고 존재감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된듯하여 내심 내 별명이 좋았다. 나에게 수술실은 어떠한 풍파에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항구였고 그 곳엔 믿음직한 나의 동료 간호사들이 있어서 24시간, 365일을 동고동락했던 친정같은 부서였다.

서울성모병원은 지속적인 로봇수술 증가와 급변하는 의료 트렌드에 발맞춰 2010년 5월에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고 우수한 외과의사 양성을 위해 2013년 10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로봇수술트레이닝센터를 개소했다. 그리고 나는 보다 체계적인 로봇수술센터 운영과 트레이닝센터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에 지원하여 새로운 업무의 장을 열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노트 첫 장에 나의 포부를 남겼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

만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비록 작은 돛단배지만 새로운 미지의 대륙으로 항해를 떠나보자!”

그러나 그 당시 국내 내로라하는 병원에도 로봇 코디네이터는 많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 표준화가 안 되어 벤치마킹도 소용이 없어 나는 거의 개척자 정신으로 직무기술서부터 운영과 교육에 대한 세부 업무 매뉴얼까지 A부터 Z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마치 미지의 세상을 향해 항해했던 콜럼버스처럼 나의 마음도 먹먹하고 또 막막했다. 그러나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 마음처럼 나도 내 일을 사랑했기에 끊임없는 고민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내할 수 있었다. 2014년 시뮬레이터 장비 세 대와 컴퓨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작고 좁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각종 드라이랩 장비들을 갖추고 의사, 간호사, 의대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1200건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해외연수 의사들의 로봇수술트레이닝 교육이 늘면서 그 간 입소문을 타고 중동지역에 서울성모병원 인지도가 높아지는 성과도 거두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을 때 우리 병원을 응급병원으로 지정한 바도 있다. 그리고 3번의 로봇수술기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 Xi 3대와 SP 1대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에는 안전사고 없이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고 2022년 한 해 총 실적으로 전국 84개 병원 중 5위를 차지했다.

다빈치 제조사 INTUITIVE는 우수한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만들고자 현재 미국 7개 병원을 지정하여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Total

Observation Center)”라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센터가 되고자 노력해온 우리 모두의 진심이 미국 INTUITIVE에 통해서 2022년 9월,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우수한 로봇수술 임상 결과, 자체 임상권한 지침 운영, multi-specialty의 로봇수술 시행, 효율적인 로봇수술실 관리, 우수한 care team work 등 전체적인 센터 운영과 교육 부분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최초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Total Observation Center)”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도전이 없으면 더 큰 성공도 없다”는 박지성 선수의 말처럼 나는 로봇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여 올해로 9년차가 되었고 지금 나의 별명은 “뭐든 다 해주는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엄마”다.

코디네이터라는 업무의 사전적 의미가 말해주듯이 나는 6개 임상과 46명의 로봇수술 집도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수많은 수술팀들 그리고 여러 협업부서들과 의견을 소통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본 센터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고 감히 자부한다. 집에서도 엄마, 직장에서도 엄마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감에 때론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라비안나이트 요술램프 지니처럼 필요한 걸 도와주는 이로운 존재라서 지금 내 별명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로봇수술센터가 많은 병원의 중점 센터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코디네이터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을 피부로 느낀다. 나아가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의 로봇 코디네이터로서 자부심과 함께 큰 사명감을 느낀다.

죽음에 무너지지 않게

이수근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얼마 전 나의 담당 환아가 사망했다. 환아와 보호자의 마지막 면회를 준비했다. 온기가 사라진 몸을 닦이고, 병실 밖으로 나냈다. 병원의 새벽, 그 고요를 울음소리가 채운다. 보호자분들이 계신 대기실까지의 거리는 백 미터가 채 될까. 걸음을 땀 나에게는 그 거리가 이미 수천, 수만 킬로미터로 느껴졌다. 단 한 마디를 전하러 가는 길. 까맣게 변해버린 보호자를 마주하기는 어렵고, 부담스럽다. 슬픔이 번져가는 복도에서 나는 아이를 보내야 하는 보호자에게 어떠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한다.

“보호자분 병동으로 와주세요.”

그 어려운 한 마디를 겨우 꺼내고 함께 병동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는 걸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복도. 그 길에서 나는 결국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사망이 선고되면 그걸로 끝이다. 영면한 아이를 보는 것 보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을 보는 것이 더 힘들 뿐 그 이상도 이하의 감정도 이제는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운구차와 함께 아이를 보낸 후 임종 간호와 관련된 기록을 넣고, EMR을 정리하고, 약을 반환한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제 나에게 하나의 사무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애도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게 어떨까 했던 지난번의 생각은 이번에도 떠오르지 않았다. 얼른 자리 정리, 전산 정리를 한 후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고 퇴근할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육교를 건너며 퇴근을 하면서 해가 떠오르는 하늘을 쳐다봤다. 지난번과 같은 하늘, 같은 생각. 이번에도 몇 번의 임종 간호를 했던 날과 똑같은 생각이 든다. 난 누군가의



죽음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구나. 이것이 옳은 것인가, 회의감이 들었다.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동시에 인간인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간호사로 일하면 죽음에 무뎌지고,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도 점차 이성적인 성향으로 변한다는데, 나도 점차 그렇게 무뎌지고, 이성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걸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죽음의 이미지는 차갑고, 사람들을 허망하게, 슬프게,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죽음의 이미지는 몇배 아니 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가 변화한다. 몇 백배는 더 허망하고, 몇 천배는 더 슬프고, 몇 만배는 더 아프게. 그런 죽음을 의료인인 간호사는 수없이 지켜보게 된다. 그래서 일까, 죽음에 대해 직면하지 않을 것 같았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내가 연차가 쌓이며 여러 번 담당 환자의 죽음을 마주할수록 죽음에 점차 인식해지고, 감정의 동요 없이 해야 하는 일로써 죽음을 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병동의 선생님께 물었던 적이 있다. 이 고민은 간호사로서 누구나 겪는 딜레마라고, 스스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떠오른 것은 기도였다. 누군가를 위해 빌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의 기도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오늘의 죽음에 대한 안녕을 부탁한다. 환아가 따뜻하고 행복한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으며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안녕을 말이다.

다음은 보호자들에게 위안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힘든 병원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보호자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간 고생 많으셨다고, 쉽지 않은 병원 생활을 함께 이겨내느라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아이는 보호자분들과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행복했을 거라고. 장례를 위해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까지 함께하며 마지막 가는 모습을

배웅하지만 보호자에게 말을 걸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허리 굽혀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유명한 만화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나? 바로 사람들에게 잊혀 졌을 때다.' 어린 내게 이 대사는 멋지게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죽음에 대해 내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반영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사라지면, 태어나고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아이가 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명이란도 있으면 그 아이는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아이의 임종을 함께 했던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이를 기억해 나가려 한다.

몇 개월간 병동에서 지내는 장기 환아가 있다. 보호자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아에게 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환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서 그런지 환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본인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려 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 고마웠다. 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웃으며 따봉을 날려주는 모습에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이해는 곧 나에게 대한 이해 같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환아와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스스로 성찰하다보면 고민이었던 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임종 간호를 하게 되는 날이 다시 찾아오면 잠시라도 그 죽음을 애도하며, 기도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환아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보호자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그리고 서로의 기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시간을. 그리고 이를 통해 나 역시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꿈꾸며

-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김나애 경희의료원

2023년의 봄, 현재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과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의료인 및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쟁점, 바로 간호법이다. 관심있게 보는 토픽이기도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나의 후배 간호사들의 처우를 결정짓는 것이기에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문득 지난 나의 삶이 지나쳐갔다.

2007년의 봄날, 처음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내가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던 시절에는 나 또한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곤 그저 병원에 잠깐 왔을 때 스치듯 본 것이 전부이기에 여러 고충들도 모르고 그저 난 어떤 간호사가 될 거야, 라는 꿈만 꾸었다. 그 시절엔 난 미래의 간호사였지만 간호사의 처우나 현장의 어려움은 모른 채 그대로 현장을 맞닥뜨렸고, 그냥 이것이 주어진 현실이라 생각하며 그냥 버티기만 했다. 바빠도 원래 바쁜가보다, 밥을 못 먹거나 5분 만에 흡입하듯 먹어도 그냥 밥을 먹은 것이 다행이구나 싶었고, 다른 사람들 섭취량/배설량 일명 I/O를 조사하면서도 내 I/O는 0/0인 채로 그저 넘어가는 그런 현실을.

그러다 올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을 접하게 됐다. 그때서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듯 지나갔던 나의 현실 또한 다시 되짚어보게 되었다.

현재의 간호사의 인식과 현실은 어떠할까?

정부도 모든 국민들도 인식할 것이다. 현장의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니 간호사를 늘리겠다는 대책으로 그저 간호대 정원만 무한정으로 늘려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처음 병원으로 들어오는 신규들은 참 많다. 간호사로 파생되는 심평원이든, 공무원이든, 제약회사원이든 무엇이든간에 임상 경력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들어온 신규들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고 미숙하다. 무슨 일이든 하다못해 그저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당연히 처음은 미숙한 것처럼. 그렇게 포부와 열정은 있지만 미숙할 수밖에 없는 신규들이 쏟아지듯 들어온다. 그리고 나의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규들에게도 임상의 시련이 닥친다. 엄청난 양의 공부량과 시간대별로 쏟아지는 업무량에 식사커녕 화장실도 못 가는 일도 많고, 안으로는 선배들에게 혼나고 일하면서는 미숙함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민원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보호자로 있을 때는 몰랐던, 그때는 체감상 한 5분씩도 안되게 보았던 것 같은 간호사들의 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규들이 그만두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다른 길로 빠진다. 여기에서 1차 이탈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 과정만 넘어가면 괜찮을까?

아니. 수많은 발암 물질 중 우리가 수도 없이 겪는 것이 있다. 바로 3교대. 교대 근무 그 자체로 우린 WHO에서 선정 한 발암물질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암 물질, 스트레스. 병원이란 곳은 아프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대면하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우린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내고 있고, 의사직군이든 검사실이든 기타 모든 직군들과 트러블에 대면하기도 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 이걸 시간이 지나도 쉬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3교대는 점차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는 무더지는 것 일뿐,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상급종합병원으로 1인당 보는 환자의 수가 적다면 다행이지만, 지방의 병원 중엔 간호사 혼자 30명 이상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이탈자가 생긴다. 임상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 간호사의 경력이 필요한 다른 많은 일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간호법이 이러한 2차 이탈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호법의 여러 쟁점이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가장 주요 쟁점은 선진국이라 여기는 미국처럼 1인당 보는 환자수를 줄인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간호의 질도 간호사의 삶도 나아지게 할 것이니까.

1인당 보는 환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환자의 고충도 더 오래 보게 될 수 있고, 환자의 질환에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5년-10년차의 젊고 능숙한 일명 중간 그레이드의 간호사들의 2차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임상은 아예 미숙한 신규이거나 이 현실을 그저 감내한 올드, 시니어 간호사들이 많고 그 사이의 중간 그레이드가 많이 없으니까.

내가 간호학과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간호사의 이미지는 취업이 잘되고 전문직으로 있을 수 있는 전망있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간호사는 3D 업종이고 열악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다는 것이 많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업이며 의사의 처방을 실제 시행하는 직업이고, 처방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환자에게 적법한 간호 진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모든 행위에 기술이 들어가며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저 간호사의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skillful, 숙련된 간호사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부디 간호법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숙련된 간호사로 살아남기

-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김보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금까지 이렇게 간호사들이 단합되었던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요즘이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16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1월 국내에 처음 발생해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임상에서 다 겪었고 그런 사회적 재난 때마다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희생되는 건 간호사들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사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왔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최고조를 달하면서 장기화 조짐이 2021년,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병원은 중증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을 만들라는 지시에 한 층의 일반 병동 환자분들 중 퇴원 가능한 환자는 퇴원, 그 외 환자는 타 병동 전실 및 전원을 통해 그 곳 병동 전체를 다 비우고 중증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로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동안 음압 격리실로 개조하고 그 곳에서 필요한 물품 배치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현장에서도 주축은 간호사들이었다. 어떨때는 이렇게 또 해내는 간호사들을 보며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실에 소속된 간호사가 50명인데 그들 중 만 4년 이하의 간호사가 36명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도 21명은 만 2년 미만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은 일에 치이고 환자에 치여서 사직이나 이

직을 고려하고 그럼 병원에서는 그 대체 인력인 또 다른 신규 간호사를 선발하고 그렇게 선발된 신규간호사들을 역량 있고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배간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소진되고 이 패턴의 반복은 계속될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 한 번은 꼭 간호법 관련 얘기가 나온다. 간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부분 파업, 단식 투쟁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5월 16일 이후부터는 간호사들의 단체집회 등이 주요 이슈로 나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여러 매체에서 무자비하게 보도되고 있어 (예를 들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한다던지...) 간호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런 보도만 보고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저 간호법이 보장해주는 틀 안에서 역량 있고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해서 오랫동안 환자를 돌볼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가 또는 우리 가족,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나의 담당 간호사가 역량이 부족하거나 숙련되지 못한 간호사이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신규간호사들을 가르쳐서 독립시켜놓으면 퇴사하고 이제 좀

숙련된 간호사 티가 난다 싶으면 퇴사하고... “퇴사하고 나면 뭐 할거야?”는 질문에 10명 중 7~8명은 “일단은 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고 그 후 공무원 준비 하려구요.” 라는 대답이다.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 하더라. 왜 병원은 평생직장이 되지 못할까?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970년부터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2005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었던 간호법. 전 세계에 96개국에 간호법이 이미 있고 개발도상국이었던 1970년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간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한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말의 희망을 품고 행복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요즘은 우울한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난 평소와 다름없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본다. 그리고 또 희망을 꿈꿔본다. 국회에서 다시 간호법이 통과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 되기를... 이 병원이 내 평생직장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 방문하여 협회 회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간호협회의 숙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이 그저 한 표 더 받기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길 바란다.

나는 엄마다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조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나는 엄마다. 4살짜리 말괄량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1대1 간호야 어렵지 않지’ 하는 마음으로 육아를 시작하였다. 다른 간호사 선배들도 모두 하나까, 조카를 돌본 적도 많으니까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딸은 나의 오만한 생각을 단숨에 없애주었다. 나는 지금도 4년째 딸과 라포를 형성하는 중이다.

나는 간호사들의 엄마다. 나는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4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키워냈다. 나는 신규간호사를 가르칠 때 처음 하는 말이 환자를 “내 가족이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간호해라.”였다. 나의 아이,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환자에게 더 성의있게 하나라도 더 간호해 드리면, 환자의 외관부터 깔끔해지고, 환자의 회복이 빨라진다.

나는 환자들의 엄마다. 나는 신경계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준다. 우리 중환자실엔 신생아부터 90대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입실한다.

신생아는 주로 수두증이나 침대에서 낙상으로 입원하는데, 중환자실에 오면 사랑을 듬뿍 받는다. 간호사들은 출근하자마자 아기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 아기들은 간호사들이 계속 안아주어 너무 손을 타서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는 전산 기록을 하기도 하고, 유모차에 태워서 발로는 유모차를 왔다 갔다 밀면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어린이들은 뇌종양이나 뇌동정맥기형으로 입원해서 2주 넘게 입원한다. 얼마 전 입원한 환아가 밤에 죽을 먹고 싶다고 하였는데 저녁이라 보호자가 병원 내에 없었다. 나는 편의점에 가서 소고기죽을 바로 사왔다. 우리 아이가 초코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사오고, 아이가 타요를 좋아한다고 하면 타요장난감을 사와서 힘이 없는 그 손에 쥐어 주었다.

의식이 없던 환아가 수술을 받고 의식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면 모두 기뻐하고, 병실로 갔다 퇴원하는 날 인사를 하러 오면 뿌듯하고 아이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부분 뇌출혈이 많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머리에 관이 있어서 식사도 간호사가 직접 먹여드려야 한다. 얼마 전 할머니께 식사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나를 보고 “우리 작은딸이랑 똑같아. 어떻게든 나 한 손잡이라도 더 먹이려는거 보니...”하면서 우셨다. 나도 살짝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난 17년차 간호사니까 능숙하게 울음을 참고 할머니께 많이 드시고 기운 내셔서 빨리 퇴원하시라고 하였다.

중환자실에는 임종기 환자들이 많다. 요즘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임종기에는 임종방에 가서 가족들과 임종을 맞는다.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그

런 환자들에게 '위대한 유산'이라는 팀 활동을 한다. 카드에 평소에 환자가 좋아하는 단어를 여러개 적어서 프린트하고, 환자의 지문을 하트 모양으로 카드에 찍어서 같이 보호자에게 드린다. 환자의 마지막 가는길에 발자취를 남기고 가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몇 년 전 대학원 수업에서 한 수녀님께서 “간호사란 직업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돈을 벌면서 봉사하는 직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래서 나는 간호사란 직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모습을 보고 사촌동생들도 진로를 바꾸서 간호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의 고등학교 3학년 조카도 간호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나는 이런 후배들에게 그들이 간호사로서 오래 일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병원에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보는 사람도 간호사고, 환자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사람도 간호사이다.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경험은 모두 다르다. 그들이 받는 간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환자들이 모두 숙련된 경력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중환자실에서는 경력 간호사가 부족하다. 대부분 2년 정도만 근무하다 그만두거나 편한 곳으로 이직한다. 그리고 간호사가 하는 일들은 너무 많다. 간호 외의 업무까지 하다보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가는 관심이 줄어든다. 신경외과 환자들은 의식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환자의 엄마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주어야 한다. 한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매우 바쁘다. 난 우리 딸이 신생아 때 아기 하나만 봐도 머리를 감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었다. 2~3명을 돌보는 중환자실 엄마들은 밥은 잘 못먹기 일쑤고, 화장실도 제때 가지도 못한다. 환자에게 흡

인 간호를 하고, 경장 영양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로션을 발라주고, 약을 줄 시간도 모자라다. 간호 외의 일들은 할 시간이 없다. 1분 1초라도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싶다. 엄마는 바라는 것이 많지 않다. 내 자식, 내 후배, 내 환자가 좋은 환경에서 오래 일하고, 더 나은 돌봄을 제공 받고 싶을 뿐이다. 그 외에 것에는 관심도 없다.

한 환자가 교대 시간에 한 경력 간호사가 들어오는 데 성모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처럼 후광이 비쳤다고 글을 썼다.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았다. 성모마리아는 만인의 어머니가 아닌가!

지금도 만인의 어머니 간호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곳곳히 지키며 참된 간호를 하고 있다.



To.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지호에게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주단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호야. 중환자실이라는 이 치열한 현장에서 널 간호했던 첫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소아중환자실도 아닌 이곳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있던 네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해보이기도 했어. 8살이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수업도 듣고 뛰어 놀기도 할 나이인데 답답한 중환자실에 누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호흡근육이 약해져 결국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성인들도 버거워하는 그 치료를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견디고 있었지. 근육에 힘이 빠져 기운이 없었을 텐데 또박 또박 글씨로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었어. 조금이라도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나도 한 아이의 엄마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많이 쓰였나봐... 쉬는 날에도 지호의 상태가 궁금하고 다음 출근했을 땐 지호가 더 많이 회복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어.

지호가 중환자실에 온 첫날, 지호 아버님께 지호의 상태를 전해드리는 짧은 통화에도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었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중환자실 면회가 제한되어 옆에서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매 순간 아이의 안위가 얼마나 걱정되고 보고싶으실까. 지호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지호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지호를 간호하고 그 마음이 지호에게 닿고 부모님께 닿으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했어.

호흡양상이 호전되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던 날 불안해하던 지호 곁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더 잘 할 수 있다며 많은 의료진이 곁에서 손 잡고 응원했었지. 무섭지만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기도 삼판을 제거한 뒤에도 스스로 호흡하던 지호의 모습에 우리 모두 안도하고 기뻐했어. 자세가 불편하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의사표현도 하고 영상 모니터도 보고 창밖 풍경도 구경하며 컨디션 유지가 잘 되어가고 있었지.

그날 이후 몇 일간의 휴무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땐 지호가 소아중환자실로 이동한 상태였고 인사도 못 하고 헤어져 아쉬웠었어. 그 곳에서도 당연히 씩씩하게 치료받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응원했는데 소아중환자실로 이동 후 이틀 뒤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단다. 지호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한번 더 가서 말 걸고 한번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덜 미안했을까. 너무 잘 하고 있고 지금처럼만 힘내면 금방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던 말들이 너무 무책임 했을까. 그저 지호를 잘 부탁한다던 아버님의 당부에 내가 부응은 했던 걸까. 지호를 간호하던 모든 순간이 최선이었을까. 어린 널 먼저 보내는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실까. 마지막 나날들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지호 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 속을 지나가고 마음도 어지러웠단다.

우리 부서원 모두가 지호의 소식을 듣고 이젠 지호가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했어. 그렇게 지호를 마음으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지호 부모님께서 부서로 편지를 보내셨어. 지호가 이 곳 외과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간호했던 모든 간호사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어. 지호가 부모님께 썼던 짧은 편지를 전달해주심에 감사하고 소아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눈 마주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필담으로 지호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다 감사하다는 내용 뿐이었는데 처음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어.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님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쓴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 인사 첫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글썽이고 목이 메어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고 읽었다. 이렇게 선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지호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컸을까. 8살 같지 않던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던 지호가 부모님은 얼마나 애뜻하고 애잔하셨을까.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지호야. 너와 이곳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지만 나에게 남긴 여운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그 가족들을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작은 진심이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감사함으로 전달되고 그 감사함이 더 큰 진심으로 돌아왔던 그 여운으로 또 다른 환자들을 간호할게.

(환아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서민정 서울아산병원

얼마 전 있었던, 소아과 폐과선언,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실제 동네에서 소아과 간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았다. 동네 소아과도 소아 인구 감소에 맞춰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저출산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셈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소아 응급실의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코로나 시기에 비해 총 이용 환자 수가 3~4배 이상 급증했다. 동네 소아과가 없다 보니 맘 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말진료가 가능하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큰 병원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응급실 내 재실 환자 수가 많아진 진료로 보기 위해 장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열이 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 대기하고 있을 공간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듯 공간은 한정적이고 의료진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소아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를 빠르게 선별하고 적시에 알맞은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소아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소아의 경우 생리적 특성이 성인과는 매우 다르고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간호사들의 보다 높은 숙련도가 요구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응급실 내에서 환자 분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 중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도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실에서 중증도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도착한 환자보다 더 늦은 진료를 받게 될 수 있는 응급실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호자들의 불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픈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면서도 간호사로서 매일 같이 그들을 마주하는 일은 실은 참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 또한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자세한 설명을 통해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공감을 표현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 분류실 간호사에 의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양하게 분류된 환자들은 중증도 순에 따라 진료를 보고 그에 따른 처치를 제공받게 된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 간호사들은 매우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가장 기본적인 혈액검사에 서부터 소변검사 그리고 CT 또는 MR과 같은 다양한 검사 및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비 협조적인 소아 환자를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혈액검사를 나가는 경우만 떠올려 보더라도 움직이는 소아를 붙잡고 혈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얇은 혈관에 정맥 주사를 삽입하여 혈액을 채취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보호자가 옆에 상주하고 있고 정맥 주사를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런 부담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겨내며 환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한다. 가령 CT, MR과 같은 검사를 떠올려도 검사 도중 움직임이 발생하면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재우게 되는데 정확한 용량의 진정제를 투약하는 것에서부터 진정 전후 아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이 간호사들의 몫이 된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처치 시에도 더 많은 업무 로딩이 발생하는 것을 짐작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포기한 채 치열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아동 전문간호사이다. 2년 6개월 동안 이론 수업과 더불어 실습 300시간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 응시 자격



을 얻은 후 1,2차에 걸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였다. 하루 평균 3~4시간 쪽 잠을 자면서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보직에 관계없이 오롯이 아픈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더욱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 소아 응급실에는 나를 비롯한 여러 명의 아동 전문 간호사들이 있으며 실력있고 유능한 간호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 조무사와의 차별, 타 직역 업무의 침탈과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간호사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확립과 그로 인한 더욱 안전한 간호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간호법 제정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시작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사람(人)과 함께하는 간호사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서아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우리 병동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산소요구량이 계속 늘어나서 중환자실로 이실하고 1주일 넘게 사투를 벌이다 소천하신 것이다. 소식을 전해들은 간호사들이 아쉬움의 탄성이 오갔다.

최○○님은 안구 쪽으로 림포마 병변이 있어서 첫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온 60대 초반의 의료급여 환자였다. 입원했을 때 완치의 의지를 가득 안고 오셨고 포트 삽입, 항암, 각종 검사를 씩씩하게 참아내셨다. 1차 항암을 마치고 나서 호중구가 떨어지며 열이 나서 퇴원을 못 하고 계셨다. 다행히 열이 좀 떨어져서 퇴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숨차다고 환자가 간호사실로 나왔고, 산소

포화도 저하가 심각해서 처치실에 나왔는데 산소마스크로는 수치 유지가 잘 안 되어서 High flow까지 달고 있었다. 처음 처치실에 나온 날, 전공의가 환자를 찾아와 상태설명을 하고 갔는데 최○○님은 울면서 이곳저곳 전화를 하셨다. “나 이제 폐암이래.”라고 하시며 엉엉 우시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전공의에게 뭐라고 설명한 건지 다시 확인하고 “최○○님, 폐암이 아니라, 폐렴이래요. 암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니 그건 죽는 병 아니냐 되물으며 다소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 이후로도 네블라이저를 적용해 드리고, 오며가며 percussion을 해 드리고 더 숨쉬기 편한 체위를 찾아드리고, 죽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실 수 있게 격려해드리며 곧 좋아질 것이라고 응원했었다.

폐렴 치료라는 것이 항생제 투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최○○님의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처치실에서의 두 번째 날, High flow를 올려도, 체위를 바꿔도 산소포화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최○○님은 자꾸 나를 불러서 숨이 너무 차니까 숨 안차는 약 좀 빨리 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환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내 심장박동은 더 빨라지고 있었다.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혈액검사 수치 같은 객관적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최○○님과 라포를 통해 얻은 주관적 정보들은 더 환자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최○○님은 웬만한 불편감은 스스로 감내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병실에 있을 때 열이 펄펄 나고 힘들어도 간호사들에게 미안하다고 쿨벨 한 번 누르지 않는 분이었는데 자꾸 날 불러대는 것이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전공의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했고 병동에 와서 상태를 봐달라고 말했다. ABGA 상으로 산소포화도가 괜찮았지만 환자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기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자모습을 직접 본 전공의는 나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지 중환자실로 갈 수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했다. 전공의가 설명하고 떠난 후 최○○님은 본인이 의료 급여라 중환자실 비용이 걱정된다며 안 가신다고 하셨다. 일단은 중환자실 이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암환자 중증 상병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은 적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을 드렸다.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여 중환자실 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난 퇴근을 했고 최○○님은 몇 시간 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환자를 살리는 간호사가 성공한 것이고, 그 반대는 실패라

고 정의한다면 최○○님을 간호한 나는 실패한 간호사이다. ‘성공’적인 간호 수행의 결과를 통해 일할 원동력을 얻는다면 나에게서는 활기찬 날보다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날들이 더 많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수행의 결과보다는 사람과 함께한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 환자를 넘어선 사람(人)!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다. 난 환자를 살리는 것은 실패했지만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성공했고 그 동행의 길에 느꼈던 따스한 마음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다.

“폐암”이 아니고 “폐렴”이라고 설명하며 최○○님을 안심시켜 드렸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환자 옆에 가까이 있으며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네뮴라이저 후기침이 잦아지니 가래 배출을 위해 등을 두드려 드리며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다. 숨 안차는 약을 좀 달라는 환자의 호소에 공감하고 바로 의사에게 보고하여 추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비용 문제로 중환자실을 꺼려하던 환자를 설득했고 이실 해야 함을 설득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습관’은 우리 간호사들 모두의 마음에 담겨있다. ‘코드블루’라는 방송에 주변에 있는 모두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 환자를 살리면 인센티브를 받거나, 명예가 올라가거나, 하다못해 누가 밥 한끼 사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쿵방거리는 나의 심박동을 억누르며 누군가의 심박동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설사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 마음 덕분에 다시 움직이는 우리가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가족 돌봄은 안전한 간호로부터

이미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간호사로 살아온 삶이 너무 길어 간호사 아닌 삶이 없는 사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당연히 병원에 취업했고 또 신규 시절을 지내고 3년마다 찾아오는 고비를 잘 넘겨 지금은 간호가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할머니 환자의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주었을 뿐인데 면회시간에 찾아온 아들로부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본인이 운영하는 칼럼에 칭찬의 글을 남겼다는 얘기와 그 글을 보게 되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처음 병원에 취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의료진, 환자, 보호자와 소통하고 주어진 간호사를 역할을 하면서 차츰 간호사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호는 지식과 기술 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빨리 습득하려 애쓰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 타 직장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사실 직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 옛날 나이팅게일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미 너무 지쳐있는 지금의 간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간호를 했는가?

외과 병동에서 근무할 때 출혈이 너무 많아 밤새 수혈을 했던 환자, 수술이 겁나 도망가는 환자도 경험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 하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의 모니터를 보며 무엇을 해주어야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적시에 가래를 뱉고 변화된 상태를 빨리 확인하여 담당의사에게 알리고 처치를 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 더 이상 생명을 유지 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환자를 면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정간호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는 그 업무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간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간호야 말로 간호사의 역할이 너무 크고 또 가족돌봄의 중심에 있는 간호였습니다.

가정에서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각종 튜브를 교환해주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며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또한 간호사임을 느끼게 해주는 간호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돌봄을 기다리는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이 급성기 환자를 치료해 주고 퇴원을 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은 가정에서 가족돌봄이 시작되는데 가족돌봄이 누구보다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며 안전한 간호로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간호사는 단독으로 영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늘 24시간 가족같이 돌보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간호사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의 이직이 많고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간호사가 동네 북이 아닌데 무언가 불만이 있는 환자, 보호자들이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자주 일어 납니다.

이럴 때 정말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라도 간호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선진국처럼 간호사가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존재하면 가족돌봄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가족돌봄은 안전한 간호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간호사가 설 자리가 있어야 가족 돌봄도 있게 됩니다.

안전한 돌봄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간호사가 이직을 하지 않고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로서의 삶이 자랑이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한 간호, 숙련된 간호, 간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생의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하는 간호사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병원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 아기의 울음소리부터 보호자의 한숨 소리, 그리고 노인의 느릿느릿한 발걸음 소리까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생애 단계에서 병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새삼 실감이 난다. 이렇게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중심에는 바로 의료진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간호사는 환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우며 직접적으로 전문적 처치를 수행하는 의료진이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 향상, 환자의 건강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환자 대비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인적인 간호는커녕 기본적인 간호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간호법이 제정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1923년까지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71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간호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간호업무에 간호진단(diagnosis)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법

적 기틀을 마련하였다.¹⁾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시켜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에 대한 규정을 50개 중 49개 주가 입법함으로써 전문과목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간호사에 한해 자율적으로 또는 의사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도록 법적으로 제정하여 환자사망률과 재원일수, 재입원률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²⁾ 이처럼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 19와 같이 전염병이 전세계를 덮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질병과 떼어낼 수 없는 삶이 다가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간호사들은 전문성과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라고 말하며 간호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간호 인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 김기경(2004), 「미국 NCSBN 간호법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한국의료법학회지 : 제12권 제 1호, 71-72쪽

2) 손의식, 「간호사 1인당 실제 돌보는 환자 수로 인력기준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2022.10.27.,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181>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산업체, 노인장기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어있는 의료법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여 방문간호, 가정간호를 통한 수준 높은 전문 의료지원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간호’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법 제정안 상에서도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간호법 내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의 형태도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체계와 인력을 더욱 확장해나가기 위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한 비율은 16%에 불과하다고 한다.³⁾ 이는 집에서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고 가정 호스피스 의료 지원은 한해 임종한 사람의 약 0.2%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출생으로부터 존엄성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 생애 말기 단계에서 중환자실, 처치실,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이다.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로만 간호사들의 노동과 가치를 포장하기에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추어 우리는 어떠한 법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고민으로 이루어진 간호법은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박광식, 「집에서 임종하고 싶어도, 대부분 병원에서 죽는다」, 『KBS』, 2023.04.18.,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68176?sid=102>

회원들의 이야기 즐거운 일터

- | | | |
|--------------------|-----|----|
| ■ 니가 선생이야? | 오지연 | 59 |
| ■ 나는 자문형 호스피스 간호사 | 이남교 | 61 |
|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전란 | 64 |

니가 선생이야?

오지연 경희의료원

나에겐 몰래 숨겨둔 본인의 비자금 위치를 폭로하시고 그 돈을 나보고 다 가지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계신다.

물론, 매우 아쉽게도... 아버님의 유언은 결코 이뤄지지 않았다. 시아버님이 워낙 말씀을 안하시는 분이셨고, 그나마 외며느리였던 나에게는 나름 말씀을 주셨던 분이라 장례식장안에서 멍하니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님이 워낙 못생기셔서 사진보다는 영정사진 앞의 한문 패(지방이라 말한다고 한다)가 눈에 자꾸 들어왔다.

‘顯考學生府君神位’

나머지 한자는 모른다하더라도 저 學生학생이라는 글자는 읽었다.

왜 학생일까? 왜 학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장례지도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으나 ‘바쁘는데 무슨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가’라는 남의 편인 사람의 제지로 답을 못들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는 ‘기획자의 습관(최장순 지음)’이란 책을 읽다가 이유를 알았다.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는 말은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인거고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죽을때까지 학생이라는 것이다. 다분히 공자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공자는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학습의 즐거움을 말하였고,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삼인행 필유아사언 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착한 점을 골라서 따르고 나쁜 점은 살펴서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다분히 우리나라의 제례는 유교적이고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고인도 인생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던 ‘학생’으로써의 삶에 포커스를 가졌던 것이리라.

그럼 학생의 반대말이 선생이라고 본다면 그럼 선생은 누구일까?

내가 신규간호사였을 때의 일이다.

병동에 고약한 할아버지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 계셨다.

다행히 그 할아버지의 입원실은 내 파트가 아니어서, 그저 남의 일인 듯 인계로만 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선생님께서 나에게 할아버지 입원실이 있는 파트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유인즉, 그 할아버지가 ‘어느 어느 간호사, 본인 간호 금지’ 명단을 만들어 수선생님께 전달하셨다고 한다.

금지명단에 없는 멤버가 그날 나뿐이었다. 젠장!

vital sign과 10시 처치를 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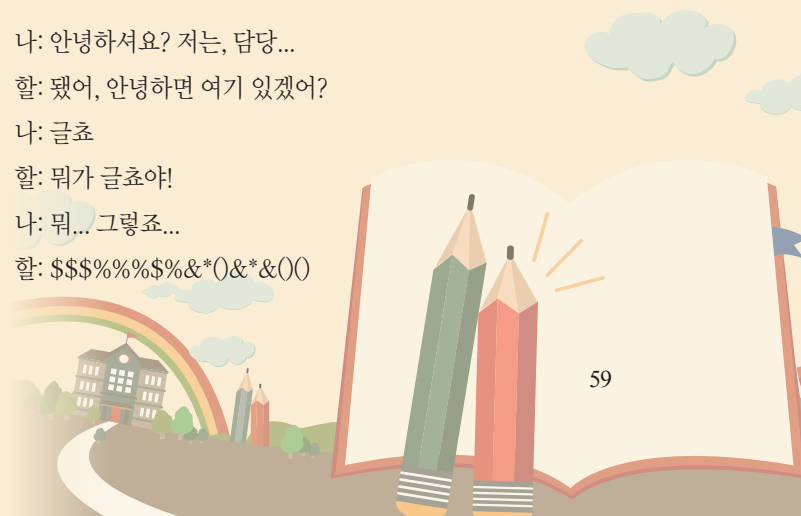
할: 댔어, 안녕하면 여기 있겠어?

나: 글썽

할: 뭐가 글썽야!

나: 뭐... 그렇죠...

할: \$\$\$%&*()&*&()



상상 그 이상이었다.

난 ‘안녕하세요’란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그날 처음 알았다.
계속해서 일의 진행이 안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수선생
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셨고, 할아버지를 진정시켜드리려 병
실에 들어오셨다.

난 그날 vital sign과 10시 처치를 11시 넘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나: 그럼 다시 혈압을 측정 하겠습니다.

할: ... 근데...

나: 네?

할: 니들이 왜 선생이야?

나: 네?

할: 아니 간호원이지 뭐 선생이야? 니가 선생이야?

나: 네?

시간이 흘러, 나는 수간호사가 되었고, 우리 신규간호사가 IV
를 2번이나 fail하자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아니 간호사가 주사도 못 놓으면서 뭐 간호사야? 그레놓고도
선생이야? 자기들끼리는 무슨 선생, 선생하면서... 이래놓고
선생이야?”

26년이 흐른 지금도 같은 질문이 들린다는 것에 너무 깜짝놀
랐다.

그나마 다행인지 아닌지... 간호원이란 말은 안했다는 것.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중에 하나는 ‘누구 누구 선생님’일
것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물리치료사도, 검사실 직원들도 모두 ‘누구
누구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다루는 예민한 업무
를, 전문적으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하기 때문이 아닐까?

더욱이 ‘선생님’이란 호칭의 가장 밑바탕에는 서로의 배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한자로는 先生님.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선생에 존대격 파생접사 ‘님’을

붙인 말로 정의한다.(나무위키)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애기하는 것이다.

공자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배움을 받아야하는
학생이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스승이 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즉, 배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생인
것이다.

신규간호사는 나와 같이 3번만에 환자의 root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환자에게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했다.

“환자분, 저희는 환자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하면 좋아지실 수 있을지를 잘 알려드리는 사람이니 선
생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간혹 잊는다.

환자는 선생일까? 선생이 아닐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들이 선생이다.

늘어 죽을때까지 배움을 받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가르침을 배움으로 학습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할 일이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고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계속 가르침만 주려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계속 가르침을 거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는 본인이 만들면 된다.

나에게 있어 우리 병동 간호사들은 참 스승이다.

내가 위축되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때, 다들 자기들만의 방
법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먼저 업무외의
일들을 즐겁게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치
는 직원이 있어서 다른 업무를 알아보라고 면담을 해야하나
고민할 때, “기다려 보자” 말하며 그 직원의 강점을 먼저 찾아
내어 알려주었던 수많은 간호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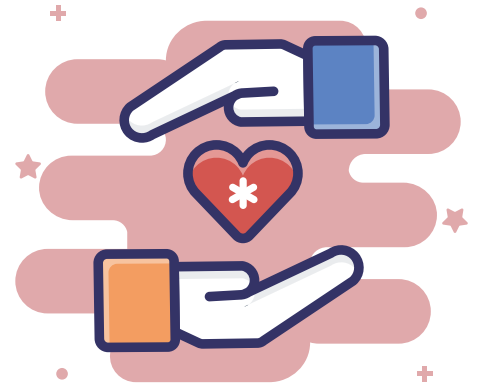
나는 우리 병동 간호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
워 나가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병동 간호사들에게 편지글과 소량
의 과자꾸러미 선물을 준비해 본다.

스승이 내 주위에 이렇게도 많은 나는 죽을때까지 행복한 학
생인 것이다.

나는 자문형 호스피스 간호사

이남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1. 자문형 호스피스가 뭔가요?

2017년 7월 “자문형 호스피스전담간호사로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간호부로 받았다. 임상에서 긴 시간동안 지쳐있었고, 이젠 더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기엔 한계를 느끼고, 사직을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간호팀장님의 제의는 나의 간호사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팀장님 호스피스는 알겠는데, 자문형은 뭔가요?” 이렇게 시작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는 이제 5년이 넘었고, 6년을 바라보고 있다.

2003년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며, 수액 연결을 위해 병동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나에게 간호사실로 들어오라는 수선생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간호사실에 들어가니 김수지 박사님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과정이 개설되니 호스피스 공부를 해보라” 하는 교수님의 제안을 받았다. 그때는 호스피스가 뭔지 몰랐다.

2. 멋진 호스피스!... 감동의 호스피스!

병동 근무를 마치고 수업을 위해 학교로 달려가며, 임상에서 만나는 교수님과 강의시간에 만난 교수님의 모습.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나는 의료인들,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 복지사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한자리에 모두 모여 말기환자와 가족 돌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경험하며, 미국 호스피스 기관 연수동안 아~ 이런 의료현장도 있구나!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돌봄의 대상이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지지 모임에서 떠난 이를 추억하며, 사별의 고통을 위로하는 현장에서 질환과 인간 그리고 가족, 죽음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유가족까지 돌봄을 진행하는 모습 등. 호스피스는 나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

3. 난 호스피스는 하지 않을 거야.

호스피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 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에 감동 그 자체로 다가온 호스피스가 한순간에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단어가 되었다.

언제나 환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과는 다른 특별한 환자의 가족이며, 유가족이라고 생각했었다.

2004년 나의 사랑하는 오빠가 말기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진행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오빠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의 여정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밀려들어 왔으며, 사별 후 애도의 과정동안 호스피스와 함께 할 수 없었다. 다시는 호스피스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호스피스 단어 자체를 잊고 싶었고, 완화의학과는 무관한 중환자실 간호사로, 혹은 건강증진센터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좋았다.

4. 다시 호스피스로...

임상에서 간호사 생활을 접고 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직을 결심했지만 막상 임상을 떠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그 순간 과장님의 호스피스 간호사로서의 역할 제의를 받았을 때, 다시 호스피스 간호사로 뛰여보자는 생각을 하니 기쁨의 빛이 드리우는 듯 했다. 2017년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자문형 호스피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나는 오늘까지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5. 자문형 호스피스와 함께 한 환자와 가족들

‘호스피스’ 하면 일반적으로 죽음을 떠올린다. 그렇기에 나를 소개할 때 “저는 호스피스간호사 이남교입니다”하면 미간을 찌푸리며, 병실 밖으로 나의 손을 잡고 환자 곁에서 이끌어 내며, “우리 엄마는 몰라요. 이제 오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와 “호스피스간호사가 왜 나한테 방문을 하나요?” 반문하는 환자들도 많이 만났다. 호스피스 간호사를 저승사자 대하듯 싸늘한 시선과 말로 거부하는 환자와 가족들... 그럴 수밖에 없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응급기 치료에서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환시점의 신체적 정서적 갈등과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을 대하는 호스피스 영역이기 때문이다.

6. 괜찮아! 남교야. 그분에게는 아직 기다려 줌이 필요해!

호스피스 협진 의뢰에 나서면서, 환자 가족과 상담할 때, 호스피스라는 용어만 나와도 화를 내며, 이때까지 치료한 과정 상에서 주치의에 대한 원망을 쏟아 부으며, 첫 상담부터 분노 폭발하는 환자와 가족들...! 그렇게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경험을 해 왔었기에, 기다려 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호스피스가 싫다고 거부한 환자와 가족들이 입원형 호스피스로 전원 간 후 그곳의 돌봄을 경험하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을 때 한없는 기쁨을 느낀다.

7. 말기암으로 임종한 며느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는 감동적 시어머니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시어머니를 만났다. 유방암 뇌전이 말기로 뇌사 판정 후 중환자실에서 임종돌봄을 위한 1인실 전실 후 임종한 며느리 앞에서 장례식장으로 운구 전에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 왔을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다. 이번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짧게 만났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딸과 엄마로... 네가 엄마하든지 혹은 내가 엄마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엄마와 딸로 만나자꾸나” 하며 A4용지에 미리 써 온 편지를 눈물로 읽어주며, 편지를 고이 접어 차가운 며느리 손에 쥐어 주던 감동적인 시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8. 임종 4일 전 생일 파티를 한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임종기에 있는 남편의 임종돌봄을 하면서, 남편의 생일인데, 생일 축하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인, 딸들과 함께 1인 병실에서 담당 간호사와 호스피스팀이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었다. 생일 선물로 수면 양말과 케익을 준비하고 생일 축하 노래 후 촛불을 붙였다. 따님은 케익의 생크림을 아버지 입에 떠 먹여 주었다. 환자는 얇은 미소를 띠우며, “맛나다. 고맙다. 딸아! 그리고 여보,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줘. 납골당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일 파티 후 4일 후에 임종하셨다.

9. 감사함으로

호스피스는故김수지 박사님 말씀처럼 사랑의 돌봄이다.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호스피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스피스다. 오늘도 김수지 박사님의 마지막 인사 감사함.

감:감사해요, 사:사랑해요, 함:함께해요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기쁨으로 호스피스 업무를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전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혈액질환과 암(종양)을 다루는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혈액종양내과.

기피하는 과이기도 하고 만성 또는 급성으로 오는 중증도 높은 환자들과 항암, 수혈이 수시로 시행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 높은 과라 다들 부담을 느낀다.

나이불문하고 20대 젊은 나이에도 암이나 혈액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늘고 있어 더 위험부담이 높고, 이런 환자들이 오면 더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님 어디 불편하세요? 통증이 있으신가요?” “낙상하지 않게 조심 하세요.”

이제 이런 말들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보다 더 먼저 내뱉어질 정도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곳이다 보니 시니어인 나도 항상 긴장의 연속인 나날들이다.

입원함과 동시에 많은 피 검사와 각종 시술들을 받고 나서 제대로 된 진단을 알았을 때, 치료를 하고 나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환자를 보면 너무도 대견하기도 하고 독한 항암제들을 맞아야 한다는 우울감과 때로는 불안감을 보이는 환자도 있다.

의료 기술 만큼이나 질환에 대한 정보도 다 공유가 가능한 시대라 유튜브나 간단한 구글링으로 입원, 치료에 관한 일정부터 약물까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나이 드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년차 오래된 간호사들이 다가갈 때면 많은 질문을 하신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지만, 좀더 생각하면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한마디 말에도 허투로 대답을 해드릴수가 없다.

내 부모님도 같은 질환의 환우이기에 환자의 보호자이자 의료인으로 양가 감정을 느끼기에 꼭 애기드린다.

“중요한 것은 본인 의지가 있어야 이겨낼수 있다고, 교수님과 의료진을 믿고 오신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할꺼라고...”

매년 3~4월이 되면 새로운 레지던트, 새로운 인턴, 새로 시작하는 간호사들로 각자 힘든 시기를 보낸다. 업무를 익히고 적응하고 또 프리셉터로서 프리셉터를 키워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의 역량이 되어 독립 했을 때는 본인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다른 길로 떠나간다. 혈액종양내과 환자들과의 인연도 늘 만남과 생과 사의 이별이 공존했던 것 같다.

이곳에서의 나의 20대 간호사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병원은 늘 빈 곳이 있으면 또 그만큼 인원을 채워서 다시금 적응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또 이또한 오랜 숙련 기간이 필요했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모질게 나 자신을 원망했고, 당장 내일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손이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었고, 어떤 때는 나에게서는 일상이지만 환자에게서 “간호사님 고마워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업되고 바쁘고 쉽었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감정의 동요를 느끼며 하루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끊임 없이 내가 나에게 질문했던 것은 잘하는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 과연 내 선택은 맞는 길인지... 그 물음에 대한 해답 또한 내 선택이고 아직 정답은 얻지 못했다.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여야하고 한발 앞서 생각할 줄 아는 노련함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력도 갖춰야 한다는 당연함에서 오는 압박감이 엄청난 무게로 느껴지기도 한다.

20년 가까이 임상을 지키면서 더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은 선배들, 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뼈 때리는 조언을 들을 때가 많다.

계단을 밟아야 올라설 수 있듯이, 도전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챗바퀴 돌 듯, 한 길 걷다 우연히 뒤돌아 봤을때 내 발자취엔 뭐가 남아있을 지 궁금해진다.

늘 일에 치여 주위를 둘러 볼 여력이 없고 감정공유가 힘들지만, 그래도 병동 식구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준다. 일로 만난 사회적 동료이기 전에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큰 위로로 서로를 다독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환자들과 간호사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병동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란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픈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입니다.

기분을 지키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5rights 확인 후 투약,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

이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하고 지키자는 마음으로 오늘도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출근합니다.

박화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작은 손길 모아 이웃 돕기

인근 어린이집 친구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부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여 지기를~^^

내가 속한 지역사회(동주민센터)에서 선별적 복지를 위한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돌봄의 의미, 간호의 가치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있다.

김주연 동작구보건소



기본을 지키자!

간호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켜가며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간호는 손위생, 환자 확인, 공부 등과 같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바로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환자를 마주했던 마음으로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나씩 지켜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정윤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생명의 탄생이 주는 가치

“새로운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세상 밖으로 탄생하는 순간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분만실 간호사. 설렌 기다림과 동시에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최상의 상태로 간호할 수 있도록 매순간 긴장감을 가지며 생명의 탄생을 주는 가치 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한빛 외 1인(권예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동기사랑 나라사랑

서로 의지하며 토닥여주고 잘하고 있다며 같이 꼭 1년 뒤에 버텨서 기념사진 찍자 하고 얘기를 나눈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러니! 1년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봤어요!

김경령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지역 재난대응 자원봉사 운영 업무 협약식

7월 5일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와 「서울지역 재난대응 자원봉사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KFI TOWER) 회의실에서 본회 서울간호봉사단 이규민 운영위원장의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구 자원봉사센터와 재난안전 기관(단체) 등 50여명의 참석하에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지역 재난대응 인식제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와 지역민의 원활한 일상회복 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긴급 봉사단 운영에의 협력이다. 위 업무협약에 따라 본회는 서울시민의 재난 상황 시 서울간호봉사단을 파견하여 피해주민 구호와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3 임파워먼트 힐링특강

7월11일, 10월16일 「2023 임파워먼트 힐링특강」이 개최됐다. 7월 11일은 송파구 소재 소마미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 날 참석한 60명의 회원은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다'를 주제로 요리와 와인의 대가인 박찬일 요리연구가의 강의를 들은 후 한국근현대미술전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10월16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천만 영화로 배우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이승재 영화평론가의 강의를 들은 후 영화와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 및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

7월18일 컨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중소 및 요양병원 간담회」가 총 44명의 간호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MZ세대와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메디탐서비스연구소 나현숙 대표의 강의에 이어 중소·요양병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그룹 토의 및 발표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병원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제7기 KNA 차세대 간호리더 발대식

7월28일 본회 3층 회의실에서 「제7기 KNA 차세대 간호리더 발대식」이 개최됐다.

KNA 차세대 간호리더는 한국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들로서 간호관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활동 등 간호계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3 명의 리더가 선발됐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운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차세대 간호리더로서의 활동들을 통해 간호의 변화와 미래를 주도할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리더들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차세대 간호리더들은 2023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네트워크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2023 간호정책 보수교육

8월3일·10일·16일 3차에 걸쳐 「2023 간호정책 보수교육」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에서 열렸다.

본 교육은 'Nursing Policy for 2023'을 주제로 대한간호협회에서 2023년 새롭게 변화된 주요 간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간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인생 2막 프로그램

8월30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인생 2막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인생2막 프로그램은 회원의 은퇴 후의 삶을 응원하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이날 퇴직 또는 퇴직예정 회원 24명이 참여했다.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한 여가 설계’ 특강을 통해 고령화로 늘어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 시간 활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3 간호대학을 통한 홍보 활동」 진행

9월5일 고려대학교 강의실에서 「2023 간호대학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간호사가 좋다”를 주제로 최혜정(삼성서울병원) 강사의 특강이 있었다.

간호사가 진출하는 다양한 영역과 강사 본인이 직접 경험한 간호사로서의 보람된 순간 소개로 구성된 이날 강의에 총 38명의 학생들이 청강했으며, 강의 후 교육과정 및 운영 방법과 강사에 대한 평가 모두 4.9점(5점 만점)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본 사업은 미래의 간호를 이끌어 갈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와 “간호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직업관을 함양하여 미래 간호 핵심 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서울 소재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3 기자간담회

9월20일 컨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23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운수 회장 취임 6개월을 맞아 보건의약전문지 기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23년 사업 성과와 정책방향, 주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간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임원이 참석했으며 2023년 중점 사안인 △조직강화 △회원 권익 옹호 △행복한 간호환경 개선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2023 간호정책세미나

9월14일 ‘디지털 혁신 기반 간호현장’을 주제로 「2023 간호정책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됐다.

△I-SMART 병실자동화 구축 및 운영사례(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민현 스마트병원 혁신부장) △언어모델과 의료(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전태준 박사) △Next Generation Vobile ENR(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예일 정보JM)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원 350명이 동시접속했으며 “최신 이슈를 다룬 신선한 주제로 매우 유용한 강의였다”, “타병원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했다.



2023 하반기 법윤리세미나

7월11일, 10월16일 「2023 임파워먼트 힐링특강」을 개최했다.

7월11일은 송파구 소재 소마미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참석한 60명의 회원은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다’라는 주제로 요리와 와인의 대가 박찬일 요리연구가의 강의를 들은 후 한국근현대미술전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10월16일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천만 영화로 배우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이승재 영화평론가의 강의를 들었으며, 대중의 공감을 얻은 천만 관객 동원 영화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영화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접목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들은 78명의 회원은 평가를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는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간호미래지도자 양성과정

10월 5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2023 간호미래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간호미래지도자 양성 과정’은 올해 첫발을 내디딘 사업으로, 미래지도자에 관심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거·정치 제도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 리더십 함양을 통해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사 미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서울 시내 병원, 대학, 산업체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27명의 간호사가 참가하여 수료했다.

교육은 입문과정으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등의 강사로부터 정치의 기본적 이해(입법부를 중심으로), 정치초보자가 성공적인 활동가로 거듭나기, 간호사의 정치 현장 소개(의정활동 구조와 사례)에 대한 강의 및 참가자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후 수료생은 “강의를 통해 현 근무지에 안주해있던 편협된 시야를 넓히는 값진 경험을 했다”,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간호사로서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심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윤수 회장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과정으로, 보건의료정책 특히 간호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에 간호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로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이에 인정받는 간호사, 행복한 간호사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과정은 이후 심화과정에서 좀 더 현장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리더십 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간호돌봄봉사단, 「2023 플로킹」으로 환경정화 사회 공헌 활동 실시

10월14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환경 봉사활동으로 서울둘레길 6-1코스(금천구청역에서 구일역까지의 약 6km 구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다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 처음 시행한 환경정화 활동이다. 현재 서울시내 간호사 110여 명이 간호돌봄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곳은 날씨에도 환경봉사를 위해 행사에 참가해 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하다. 지역사회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 간호사들의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민 간호봉사단운영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간호돌봄봉사단은 약 두 시간 가량 봉사활동을 벌여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간호사 단체지만 의료봉사에 국한되지 않는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서 새롭고 보람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간호사 단체가 여러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3 나이팅게일 캠프

10월11일·18일·25일 3차에 걸쳐 「나이팅게일 캠프」를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나이팅게일 캠프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고 회원들에게 휴식과 자기성찰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됐다. 1차에는 관리자 36명이, 2차에는 중견간호사 36명이, 3차에는 신규 및 프리셉터 3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소도구테라피 △슈테라피 △싱잉볼비움명상 △KIVA로 구성됐다.

캠프참여자자는 “느림과 이완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1박2일 동안 건강식을 먹어 건강해진 기분이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또 한 번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개최

11월27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구로구청 신관7층에서 ‘함께하는 나눔’의 일환으로 구로구청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운수 회장을 비롯하여 이규민 간호봉사단운영위원장 외 간호돌봄봉사단원과 구로구청 자원봉사자 24명이 함께했다. 조운수 회장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구로구 관내에 있는 만큼 구로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온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약 4시간동안 담가진 김장 500kg은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전달식을 가진 후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구로구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된다.

1923

2023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간호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들이 만든 회원들의 매거진입니다. www.seoulnurse.or.kr